

여성단체의 세력화, 한시적 연대의 모순에서 벗어난 지속적 사업진행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섭력 확보 등은 당시 여성단체연합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배경이었다.¹³³⁾

연합결성의 계기가 된 사건은 1988년 강정순 사건으로, '대현1동 파출소내 여성운간사건 공동 대책위원회'라는 연대모임을 구성한 단체들(대구여성단체협의회 비소속단체)이 그 주축이었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업을 연대하면서 지속적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 후 1996년 2월 '함께하는 주부모임' 사무실에서 준비를 위한 첫 모임을 갖는다. 당시 첫 모임에서는 10개 단체¹³⁴⁾가 참석하여 우선 3·8기념 대구·경북여성대회를 대구·경북 여성단체연합(준)에서 준비하기로 한다. 3월 22일 모임에서는 지역여연 참가단체의 범위를 1년 이상의 활동실적과 회원조직을 갖고 있는 여성단체로 확정하고, 여기서 6개의 초기 소속단체를 확정한다.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통해 1996년 10월 16일 동아쇼핑 아트홀에서 이 연합은 결성된다. 뜻을 같이한 단체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 전화, 함께하는 주부모임, 포항여성회, 여성과현실연구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등 6개 단체이고, 이들 중 회장이 선출된 단체가 집행단체가 되어 1년 동안 사업을 책임지기로 결정한다. 초대회장은 여성회 회장인 김난경과 계명대학교 유가효 교수였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매년 3.8대구·경북여성대회개최와 성폭력추방 캠페인,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과 홍보를 위한 활동, 북한여성과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운동 등의 활동과 대구지역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교육, 회원단체 컴퓨터교육 등 개별소속단체별로 행하기 어려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1998년 제1회 대구여성영화제를 개최한 이후 매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연은 개별 단체들의 연합 형태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각 개별 단체 사업에 대한 부담감,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업주체의 불분명함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단체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사업 공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3) 참고문헌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창립총회 및 발족식』자료집, 1996.
 이영란, 『대구·경북여성운동 50년』,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1997.
 윤정원, 「여성운동의 거름으로 묻은 10년」, 『마주잡을 손하나 오고있거나: 대구여성회 10년사』, (사)대구여성회 10년사 편찬위원회, 1999.
 조송미현, 「대구·경북 여성단체연합의 현황과 과제」, 『마주잡을 손하나 오고있거나: 대구여성회 10년사』, (사)대구여성회 10년사 편찬위원회, 1999.

133) 조송미현, 「대구·경북 여성단체연합의 현황과 과제」, 『마주잡을 손하나 오고있거나: 대구여성회 10년사』, 1999, (사)대구여성회 10년사 편찬위원회, pp.182-184.

134) 당시 참가한 단체는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여성회, 생명의 가치를 찾는 여성모임 준비모임, 여성과 현실연구회, YMCA 시민중계실,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김천 여성회관 사랑의 전화, 참교육 학부모회 등 10개 단체였다. 당시 참교육 학부모회는 3·8행사에 참가단체를 하기로 한다.

대구·경북지역 교육·문화·여성운동단체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대구지구 교원노동조합	관리번호	대구·경북-교육단체-01
창립시기	1960. 5. 7.	해체시기	1961.5.16.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 4·19 혁명 이후, 대구의 초, 중, 고교 교직원들이 학교와 사회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결성한 노동조합. - 이후 대구교원노조는 경북, 부산, 경남, 서울 등으로 확산되어, 5·16 쿠데타 이전까지 1년 동안 벌어진 한국교원노조운동의 핵심적인 운동이 됨. -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아 해체됨. 약 2,000명의 교원이 해직되고, 주요 핵심인물들은 장기형을 받음. 		
조직 내용	1인의 분회장과 5인의 대의원,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됨.		
기관지명			
주요 활동가	김문심, 김장수, 송영기, 여학룡, 이목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의 완전 자유 보장,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교원의 신분보장, 교육 조건 개선과 학원 민주화, 학원의 정치적 중립과 비영리화, 관권의 횡포에 대한 투쟁, 4·19 혁명의 성과 보장 등을 강령으로 내세움. -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직과, 교원노조운동을 억압하는 정부에 맞선 투쟁이 주된 활동이었음.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p>첫째,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벌어진 한국교육운동. 둘째, 4.19이후 이루어진 한국교원노조운동의 출발인 동시에 핵심. 셋째, 80년대 전교조 운동의 전범으로 기록.</p>		
관련자료	선언문 및 결의문, 성명서, 서한, 신문기사, 대정부 탄원서, 사건 관련 판결문 등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대구 YMCA 교육자회	관리번호	대구·경북-교육단체-02
창립시기	1981. 12. 17.	해체시기	1987.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 한국 YMCA 중등교육자 협의회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공화국에서 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학교 교육의 반성을 공감한 중등교육자들의 모임이 YMCA라는 종교단체의 보호 아래에서 출발. - 이후 서울을 비롯한 광주, 부산, 대구 지역에서의 지부조직을 형성. - 전교협과 전교조의 모태가 됨. 		
조직 내용	협의회 회장과 간부, 회원으로 구성		
기관지명	"Y교협 회보"(서울)		
주요 활동가	김정호, 이재원, 이창식, 조원재, 현대덕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보수적인 대구·경북지역의 교육풍토 속에서, 60년대 교원노조운동의 중심지로서 지역의 역사성을 복원시키려는 의도에서, 낙후된 교사의 권리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개선하고자 했음.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신. - 지역 사학재단의 비리와 폭행에 대한 공식적인 첫 문제제기를 함. - 80년 광주 이후, 대구와 광주 지역 교사 교류를 통한 지역감정 타파. 		
관련자료	"상록", "민주교육", "교사신문", "교육현장", "민중교육", "교육과 실천", "민족과 교육" 등의 간행물.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대구·경북 교사협의회	관리번호	대구·경북-교육단체-03
창립시기	1987. 10. 31.	해체시기	1989. 6.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 민주교육을 위한 전국교사협의회		
창립배경과 과정	6월 항쟁 이후, 대구·경북 Y교협은 좀더 일반화된 교육운동을 위해 대구·경북 교사협의회로 거듭난다. 대구와 경북으로 분리된 교사협의회는 평교사회와의 연합을 거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족하기 이전까지 지역의 교육민주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었다.		
조직 내용	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		
기관지명			
주요 활동가	이재원, 이도걸, 이병희, 배창환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대구교사협의회는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대구 일선학교의 평교사 협의회와 제휴하여 "대구평교사연합회"를 건설한다. 구 단위로 활동한 평교사연합회는 대중 교사들을 끌어들이는데 주력하였다.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교육민주화운동의 대중화를 이끌어 내었다. 당시 대구의 전체 교사의 상당수를 교육운동에 동참시켰으며, 전교조가 합법화된 2000년까지 그 수를 유지하였다.		
관련자료	"교사신문", '교육민주화' 선언문, 문화행사 포스터, 강연사 등.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리번호	대구·경북-교육단체-04
창립시기	1989. 6. 11.	해체시기	활동중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배경과 과정	<p>- 1986년 5월 '교육민주화 선언' 이후 교육 현장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전국교사협의회 창립(9월)으로 교육운동이 본격화됨.</p> <p>-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전교협을 대신할 단체의 필요성 속에서 창립된 전교조는 전국 15개 지부와 157개 지회를 가지게 됨.</p>		
조직 내용	포괄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지부장과 각 처의 실무임원 및 조합원, 그리고 지도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됨.		
기관지명	"대구교사신문 신문"		
주요 활동가	박지극, 배창환, 이도걸, 이만호, 이병희, 장명재, 정만진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노동 운동. 학교단위 및 지부단위 수준의 교육민주화 투쟁 및 각종 행사 개최.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지역 교육 현장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실천을 통한 민주화 기여.		
관련자료	성명서, 결의문, 운영세칙, 신문기사, 지지단체 성명서, "전교조신문", 편지 등.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지방사회연구회	관리번호	대구·경북-교육단체-05
창립시기	1985. 11.	해체시기	1992.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 지역사회연구회 협의회의 일원이자 주도적 위치		
창립배경과 과정	<p>대구·경북 지역에 진보적 학술 단체의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 교수, 지식인들의 모임. 지역 사회의 여러 문제와 관련한 학술적인 조사 및 여러 전공이 교류하는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짐.</p>		
조직 내용	각 학술부분의 연구국과 사무국 및 편집국 운영		
기관지명	"지역동향", "지사연회보"		
주요 활동가	김형기, 배영순, 이윤갑, 이종오, 이호철, 최상천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내적으로 대구·경북지역의 모순된 현안을 학문적으로 규명, 고발, 개선하려는 작업이 이어졌다. 외적으로는 지방사회 연구라는 큰 흐름을 전국적으로 주도해 나갔다. 호남사회연구회(전주, 전북), 지역사회연구회(부산, 경남), 전남사회연구회(광주, 전남)가 출범을 이끌었고, 그 연합체인 지역사회연구단체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함.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첫째, 지역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학술운동을 시작하였다. 둘째, 각 대학의 학내 권위주의를 문제제기하여,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결성되는 모태역할을 함.		
관련자료	창립대회문, 회의록,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자료, 행사 팸플릿 등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경지회	관리번호	대구·경북-교육단체-06
창립시기	1989. 3.	해체시기	활동중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창립배경과 과정	이어진 군사정권 아래에서 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된 지식인 운동. 전국단위의 조직 건설에 이은 대구·경북의 지회가 1989년에 출범함. 대구·경북 지역의 각 대학별로 분회가 건설됨.		
조직 내용	지회장 및 각 대학별 분회장, 대의원, 간부.		
기관지명	"민교협 소식"		
주요 활동가	강대인, 김민남, 신현직, 이종한, 주보돈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민교협 대구·경북 지회에 참여한 교수들의 상당수는 지방사회연구회에 가입한 인사들이었음. 그래서 지방사회연구회의 조직 특성 및 목표가 많이 투영됨. 이들은 초창기부터 전교조 지지운동, 사립학교법 개정운동, 교수협의회 발족 및 총장직선제 쟁취 운동, 부패사학 개혁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실천해옴.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첫째,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사회적 인식에서 출발한 교수 운동. 둘째, 각 대학의 교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총장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학내 민주화에 기여함.		
관련자료	회보(민교협 월보, 민교협 회보), 성명서, 세미나 자료, 민주화 복직 투쟁 팸플릿 및 인터넷 자료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우리문화연구회	관리번호	대구·경북-문화단체-01
창립시기	1985. 2.	해체시기	1989.
소속단체/지부			
창립배경과 과정	1980년대 초중반, 학원지올화 시점에 대구 지역 각 대학 출신 문화운동 그룹이 결성한 단체. 이후 민문련, 민예련, 노문련(노동자예술문화운동연합) 등으로 발전적 해체와 변화를 거듭한 이후 민예총 대구지회의 핵심으로 발전.		
조직 내용			
기관지명			
주요 활동가	김재호, 김진태, 김충환(당시 김지민), 배창환, 이균옥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일제 식민주의, 권위주의, 소비 자본주의 등에 대한 극복의 한 방편으로 문화 예술운동을 추진함.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대구·경북 지역 문화예술 운동의 1세대. 80년대 이후 대구 지역의 노동, 정치, 언론, 종교, 교육 운동에 공헌.		
관련자료	"분단시대", "일꾼의 땅"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예술마당 솔	관리번호	대구·경북-문화단체-02
창립시기	1990. 3.	해체시기	활동중
소속단체/지부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대구·경북 지역 문화운동의 한 거점. - 현실참여적 문화예술 작품을 공연하는 시설로 기획되었음. - 일반 시민들의 후원을 기반으로 설립한 법인. 		
조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회원, 특별후원회원, 일반회원, 도움회원 등 각 회원들이 기부하는 다양한 후원금으로 운영됨. - 상근, 비상근직으로 이루어진 예술기획, 학예연구사, 강사진이 소속되어있음. 		
기관지명	예술마당 솔 소식지		
주요 활동가	김영동, 김윤수, 도진용, 유홍준, 정지창, 최재우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최초 설립 이후, 공연, 전시, 영상, 강좌 등 종합적인 예술공간으로 발전됨. 민중미술, 마당극 등 공연과 각종 세미나, 강연, 토론회, 영화제, 문화유적 답사와 미술 학교 등을 개최함.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p>첫째, 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하는 기관의 검열 간섭으로부터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바람막이 역할을 함.</p> <p>둘째, 문화운동과 관련한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 공간 마련하여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음.</p> <p>셋째, 다양한 행사들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임.</p>		
관련자료(창립선언문, 규약)	회의록, 회지, 작품전 초대장, 팸플릿, 포스터 등.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관리번호	대구·경북-문화단체-03
창립시기	1994. 1.	해체시기	활동중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창립배경과 과정	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지역 문화예술 운동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려는 시도가 서울과 지방 동시에 벌어졌다. 민주화운동에 있어 문화, 예술 부문을 민족예술의 발전으로 구체화시키는 한편, 통일과 민중,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짐. 각 사회운동에 지원, 연계활동을 벌여나감.		
조직 내용	지회장,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사무국, 정책실, 총무국, 기획실, 편집실 및 각 위원회(통일, 정보화추진, 노동, 국제교류, 청소년) 및 연구소와장르별(문학, 미술, 음악, 사진, 건축, 영상, 풍물, 춤 등) 상임분과 위원회와 하부단체		
기관지명	“민족예술”(중앙 발행, 지역 발행-1999년)		
주요 활동가	김창우, 이균옥, 이하석, 정지창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p>민족예술발전을 위한 창작과 전승 활동 지원</p> <p>민족예술 발전 정책 개발</p> <p>민족예술 발전을 위한 지역 자료 발굴보존, 정리</p> <p>민족예술인 교육 사업</p> <p>민족예술인 복지 및 권익 보호 사업</p> <p>사회운동, 문화단체와의 공동 연대 운동</p>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p>첫째, 90년대 이후 달라진 문화예술,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지역의 진보적 지식인들을 결속시키는 통합체 역할을 맡음</p> <p>둘째, 소속된 하부 단체를 유지 차원을 떠나, 좀더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 접근함으로써 민족예술을 대중들에게 보급함</p> <p>셋째, 지역의 노동, 정치, 교육, 학생, 농민, 여성 운동 현장을 지원하면서 연대 투쟁을 이끌어 감.</p>		
관련자료	민예총 발간 서적, 관련 연구소 회보, 공연 및 연행, 전시 홍보자료.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문예미학회	관리번호	대구·경북-문화단체-04
창립시기	1994. 3.	해체시기	활동중
소속단체/지부			
창립배경과 과정	사회 현실을 인문학적 인식틀 안에서 다루고자 한 학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하였음. 창립 당시,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 “이론” 등 동인 문예지가 가진 장점 및 단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음.		
조직 내용	회장과 편집위원, 연구위원 및 고문으로 꾸려진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정회원 및 준회원들의 참여. 이들은 대부분 대학에 소속된 정규, 비정규 교수들로써, 문학, 예술학,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자들임.		
기관지명	“문예미학”		
주요 활동가	김용락, 서경석, 이강은, 정지창, 허상문, 홍승용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학제간 연구를 시도하는 학회로서, 사회 문제를 쟁점화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그 방법으로 문학과 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현실과 학문을 연결하려고 시도함. - 세미나를 중심으로 도출된 내용을 책으로 묶어 펴냄.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첫째, 한국에서 사회변혁 문예운동을 본격적인 연구 주제로 다룸. 둘째,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사회운동의 이론을 이끄는 사례가 됨.		
관련자료	학회지, 세미나자료, 회의록		
비고	다른 학술지와 구별되는 점은 한 가지 주제를 매우 심도적으로 다룸. 대구대학 주변의 경산시 하양읍에서 출판, 세미나 활동이 이루어짐.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애린회(대구여성의 전화)	관리번호	대구·경북-여성단체-01
창립일	1987. 3. 28.	해체시기	활동중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소속단체 :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소속단체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5월 가정내 폭력을 당하는 여성을 돕고자하는 취지에서 여교수 몇 명이 준비모임을 통해 회원 8명으로 발족. - 1987년 3월 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사랑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애린회(愛隣會)’라는 명칭으로 출발. - 1992년 11월 대구여성의 전화로 명칭 전환. 		
조직 내용	이사회-공동대표-운영위원-사무국-교육부, 인권부, 상담부, 총무부, 홍보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상담소, 쉼터, 법률/의료 자문위원		
기관지명	“쉼터”(이후 대구여성의 전화로 기관지명 전환)		
주요 활동가	이옥분, 손명자, 최석희, 진수미, 장덕자, 조성희, 장기순, 유가효, 최정희, 김혜순, 이두옥, 조윤숙 외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권단체로 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 여성차별적 제도와 관행개선을 통해 민주적, 남녀평등한 사회구현 기여를 목적으로 함 - 여성인권활동: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제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여성을 위한 의료인단 및 변호인단 운영 - 지역사회활동: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활동 - 상담활동: 가정폭력, 성폭력, 외도, 부부갈등, 시집갈등, 직장내 성희롱 등 제반여성문제 상담 - 교육활동: 여성인권교육, 여성상담교육,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성교육 강사 양성교육, 미혼남녀 성교육, 청소년 성교육 등 - 조사연구, 홍보활동: 지역 여성문제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활동, 자료집 발간, 회지발간, 홈페이지 운영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지역 최초로 아내구타 문제를 사회문제로 이끌어내고, 성폭력문제를 규정해냄으로써 지역 여성인권운동의 새 장을 열었다.		
관련자료(창립선언문, 규약)	회보, 총회자료 등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대구여성회	관리번호	대구·경북-여성단체-02
창립일	1988. 1. 23	해체시기	활동중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소속단체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6월항쟁이후, 실천적 여성단체를 만들기 위한 진보적인 여성들의 모임이 상시화, 구체화된 결과인 대구여성발전연구회가 현재 대구여성회의 모태가 됨. - 1987년 8월 당시 여성의 전화 원장이던 김희선의 대중강연회 이후, 뜻을 같이한 몇몇과 창립을 준비하게 됨. - 1988년 1월 대구 YMCA 강당에서 창립총회 		
조직 내용	총회-운영위원회-사무국-총무-조직-교육-홍보, 성과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편집위원회, 환경위원회, 평화위원회, 각종 소모임, 부설기구		
기관지명	"대구여성"		
주요 활동가	윤정원, 정종숙, 김영순, 최이영희, 안이정선, 김원희, 김난경 외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적 참여, 지역사회발전 및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여성노동사업: 직장여성관련사업, 직장여성상담사업 - 지방자치사업 -교육사업 -환경사업 -실업문제 -여성복지정책관련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는 지역의 현장 여성노동자문제에 대한 지원과 구체적 논의의 장으로 역할. - 지역내 여성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여성사회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민주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관련자료(창립선언문, 규약)	대구여성회 10년사 외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함께하는 주부모임	관리번호	대구·경북-여성단체-03
창립일	1988. 12	해체시기	활동중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소속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9월 창립 준비모임, 김춘희 자택(서은자, 김춘희, 정경숙, 한정자, 이선희, 한용옥) - 1988년 12월 주부대상의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회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 		
조직 내용	회장-총무-서기- 각 부장(교육부, 환경부, 여성부 외)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기관지명	"함께하는삶"(이후 함께하는 주부모임으로 전환)		
주요 활동가	정경숙, 김연숙, 김혜란, 김춘희, 한용옥, 우정애, 김경숙, 최영숙, 강영희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대상의 교육, 상담활동 및 생활환경문제에의 접근 주부들의 자율화, 인간화에 초점. - 배움마당, 주부상담실, 생활환경과 관련된 활동 - 대구공회추방협의회, 공산댐살리기 범시민 대책협의회, 낙동강 오염사태 해결을 위한 대구·경북 범 시도민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연대활동. 여연과의 연대활동, 사업전개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사회문제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주부들이 스스로를 인식하며 실천하는 자발적 주부단체. 보수적인 대구라는 지역 속에서 주부의 인간화와 사회적 역할을 찾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 옴.		
관련자료(창립선언문, 규약)	15주년 기념 사진집 흔적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여성과 현실연구회	관리번호	대구·경북-여성단체-04
창립일	1995. 3. 30	해체시기	2000.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소속단체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9월 여성학 전공자 9명이 (가칭)대구여성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시작한 세미나에서부터 출발함. - 1995년 창립. 대부분 석사과정 이상으로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 가족복지를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구지역의 구체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학술적 접근과 실천방안 모색 		
조직 내용	회장·총무·각 연구분과(성분과, 노동분과, 문화분과 등), 학술활동팀(지역단체 프로젝트 업무)		
기관지명	학술지 및 소식지 “여성과 현실” 부정기간행		
주요 활동가	김영순, 이현지, 윤경희, 안선희, 김현정, 김복희, 허미영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정기적 세미나, 월례발표회 등의 연구회 활동 - 교육사업: 연구회 준회원 교육, 성, 가족, 노동, 국가와 관련하여 여성문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재뱅크제도 실시, 여성학 강의의 전문성 확보. 여성학 교를 통해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여성학적 시각의 대안적 사회상 제시, 강의, 강연, 원고 등을 통한 여성학의 대중화에 기여 - 조사자료사업, 출판사업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지역 여성학 전공자들이 모여 만든 대구·경북 유일의 여성문제연구단체,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경험적 연구 실시, 자료축적		
관련자료(창립선언문, 규약)	학술토론회 자료집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포항여성회	관리번호	대구·경북-여성단체-05
창립일	1995. 5. 12.	해체시기	활동 중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소속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포항여성회 준비위를 꾸릴 당시, 지역내에서 발생한 양아버지에 의해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접하게 되고, 이 사건이 2년 반을 끌게 됨에 따라 1995년 포항여성회가 창립. - 노동조합 투쟁 중 여성들끼리의 모임의 필요성을 절감한 김조숙자에 의해 창립된 순수 민간여성운동단체 		
조직 내용	총회-이사회-실행위원회(건축,재정, 문화, 인권, 정책, 지역사업)-사무국.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자원상담원모임, 부설 성문화센터 성교육강사팀		
기관지명	“세상을 바꾸는 힘”(격월간)		
주요 활동가	김조숙자, 송서애경, 윤정경희 외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활동방향은 여성의 정치 세력화, 여성인권 보호, 여성환경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구체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 실태조사, 지역여성의 고충과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추구, 지역시민단체 연대활동, 성평등교실, 여성영화제, 지역환경문제 개선활동 등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지역민에 의한 자발적 순수 민간여성운동단체로 포항지역내 여성문제해결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자료(창립선언문, 규약)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리번호	대구·경북-여성단체-06
창립일	1996. 10. 16.	해체시기	활동중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상급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입단체(창립당시) : (사)대구여성의 전화, (사)대구여성회, 여성과 현실연구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의 통일된 목소리의 필요성을 절감, 연합을 통해 지역여성운동과제 발굴, 여론화, 여성지도력 확보, 양성하고자 결성 - 1996.2. 9. 함께하는 주부모임 사무실에서 지역 여성단체연합 결성을 위한 여성단체 간담회 개최-10개 단체 참석 - 1996.3.22. 지역여연 참가단체의 범위는 : 1년 이상의 활동실적과 회원조직을 갖고 있는 여성단체로 정의, 단체 확정 - 1996.4.19. 준비위원장에 김난경 대구여성회장 선출, 정관 초안은 대구여성회가 작성하여 단체에 배포하기로 함. 		
조직 내용	총회를 거쳐 추천된 가입단체 회장과 간사가 연합의 활동을 중임함.		
기관지명			
주요 활동가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인권, 실업, 문화 및 다양한 연대사업에서 여성계의 통일된 의견제시를 위해 노력.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구·경북여성대회, 외국여성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연대사업,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도민연대사업, 양심수 후원의 밤 연대사업,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 시민참여박람회, 지역여성활동가 워크샵, 노인정책세미나, 대구여성영화제, 여성문화제 등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지역 여성단체의 연합을 통해 진보적 여성단체의 세력화 여성의 정치참여 및 정책대안 제시에 여성단체의 통일된 목소리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정관 자료집 참조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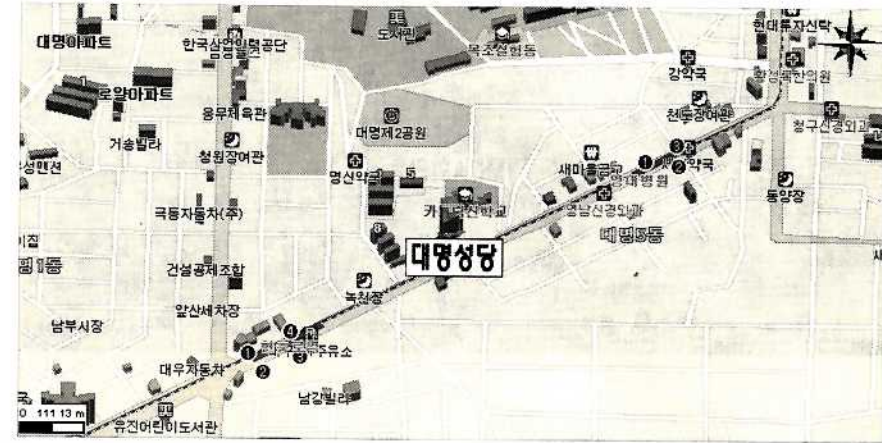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 교육·문화·여성운동 주요 사적지

(1) 천주교 대명성당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5동 남부경찰서 옆

□ 역사적 의의 : Y교협, 전교조 등의 주요 집회장소.

인권관련 3세계 영화제 개최



대명성당(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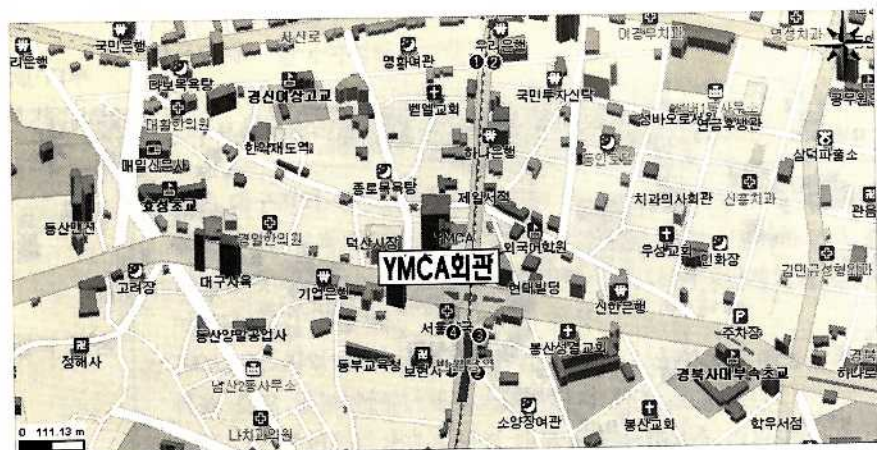


대명성당(현재)

(2) YMCA 회관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23

□ 역사적 의의 : Y교협 성명서발표 및 다수 집회, 다양한 민주화 영상물 상영의 공간.
대구여성회 창립총회장소, 여성문화한마당 등의 공연장소



YMCA정문(1980년대)



YMCA 정문(현재)



YMCA 강당(1994년)



YMCA 교남실(현재)

(3) 대구백화점 앞 광장

□ 위치 : 대구광역시 동성로 2가 174

□ 역사적 의의 : 대구·경북여성대회, 각종 캠페인 및 거리서명운동, 각종 연대사업 등의 장소.
민예총 행사 다수.



대구백화점 앞 광장(현재)

(4) 경북대학교 대강당 앞 광장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 역사적 의의 : 전교조 대구지부 창립 및 다수 행사



경북대학교 대강당(1980년대)



경북대학교 대강당(현재)

(5) 예술마당 솔 개관장소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계대사거리

□ 역사적 의의 : 초기 예술마당 솔과 민예총 대구지회 사무실



예술마당 솔 외부(현재)



예술마당 솔 내부(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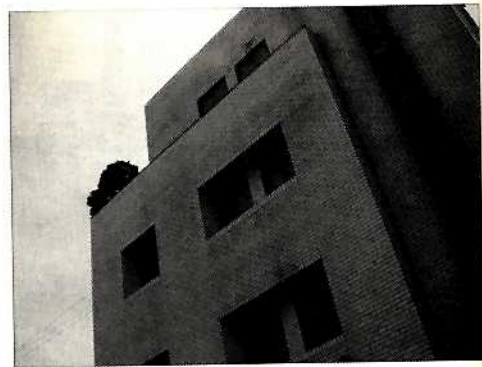
(6) 대구초등학교 앞 대륙양복점 건물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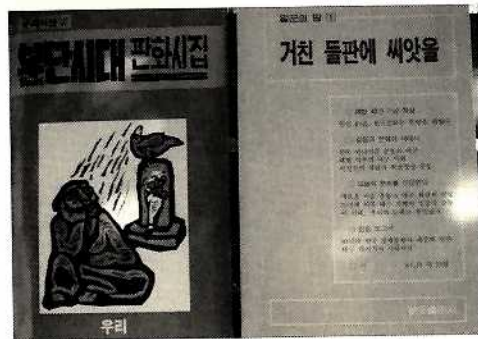
□ 역사적 의의 : 우리문화연구회와 Y교협의 사무실



우리문화연구회 및 Y교협 사무실 1층(현재)



우리문화연구회 및 Y교협 사무실 2층(현재)



우리문화연구회
관련 출판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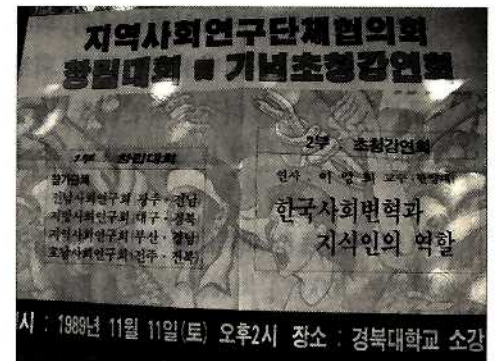
(7) 지방사회연구회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 역사적 의의 : 대구·경북 지역의 교수, 지식인들의 학제적 연구 및 회합장소



지방사회연구회 입구(과거)



지역사회연구단체협의회 창립대회 포스터

첨부자료 목록

(1) 첨부 자료 I (교육운동 上)

■ 개별 문서 자료

- 한국YMCA중등교육자협의회, 『교사신문 제3호』, 1986
 개인 및 단체 서간문 10부(1989-1990)
 대구교협, 전교조, 민교협 - 성명서, 공개질의서, 결의문, 고발장, 보도자료 등 21부(1989~199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제2기 제3차 대구지부 대의원대회』, 199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제2기 제4차 대구지부 대의원대회』, 1990
 고 김수경학생 사건(전단지, 편지, 추도사, 결의대회문 등), 1990
 경상고 학생부당징계 사건(보도자료, 고발장, 성명서, 서간문, 메모 등), 1990
 전교조대구지부교육선전부, 『조합원학교』, 1990
 지방사회연구회 월례발표회, 서종문, 「광주항쟁의 연극화와 그 의미」, 1988
 지방사회연구회 강좌소개 안내장(사회과학 강좌, 역사강좌), 1990
 지방사회연구회, 토론회 자료 5부(1988-1991)
 지방사회연구회, 『지방사회연구회 회보 7호』, 1990
 지방사회연구회, 『지방사회연구회 회보 10호』, 1991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사회연구소 창립대회』, 1992

(2) 첨부 자료 II (교육운동 下)

■ 단행본

- 이 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푸른나무, 1989
 이재원, 『이재원 선생 화갑기념문집: 참교육의 길-4부』, 사람, 1996
 이만호, 『이만호 선생 퇴임기념문집: 교육과 민주화-2부』, 대구교육연구소, 2000

(3) 첨부 자료 III (문화·여성운동)

<문화운동 관련>

■ 단행본

- 김종인 외, 『분단시대 판화시집』, 우리, 1985

■ 개별 문서 자료

- 무크지, 『거친 들판에 씨앗을』, 분도출판사, 1985

- 우리문화연구회, 『민족문화교실』, 1987
 대구·경북민족문화회, 『대구·경북민족문화회보』, 1988
 예술마당 솔 건립기금마련 작품전 안내장, 1990
 제3회 민족극 한마당 안내장, 1990
 예술마당 솔, 『예술마당 솔』, 1992
 대구·경북민족미술인협의회, 『현실과 미술 창간호』, 1992
 대구·경북민족미술인협의회, 『현실과 미술 3호』, 1993
 대구·경북민족미술인협의회, 『제2회 디딤』, 1993
 대구·경북민족미술인협의회, 『대구·경북민미협소식』, 1993. 6
 대구·경북민족미술인협의회, 『대구·경북민미협소식』, 1993. 7
 대구문화연구소, 『대구문화통신 창간호』, 1996
 대구문화연구소, 『대구문화통신 제2호』, 1996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민족예술 대구』, 1999

<여성운동 관련>

■ 개별 문서 자료

- 대구여성의 전화, 『컴터 4호』, 1993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준비위),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1회 대구·경북지역 여성대회』, 1994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준비위),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2회 대구·경북지역 여성대회』, 1995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창립총회 및 발족식』, 1996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제 4차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2000

별첨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 일지

분야 년도	정치·학생	노동	농민	문화·예술
1951	1951. 5. 1. 대구에서 전국 최고 노동절 행사 개최	1951.12. 조선방직쟁의		
1954		1954.10.20. 대구 내외방직 노조 임금 60% 인상 쟁의		
1955	1955. 2. 노장환 등 조국전선구국투쟁동맹원 18 명 검속 1955. 2. 불온문서사건 대구서 군사계관 1955. 2. 13. 대구집회 방해 사건 1955. 5. 서민호에 대구고검서 징역 10월 언도 1955. 5. 정부통령선거 대구시 개표 중단 1955. 8. 중앙선위서 경주시내 일부 채투표 명령 1955. 9. 대구 농민 23명 상환곡 고율로 분배농지 포기 언명 1955. 9. 대구매일 최석채 주필 구속 1955. 9. 대구매일신문에 테로 사건 발생 1955. 9.18. 대구매일신문 필화문제로 사육 피습. '학생을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실이 발단	1955.11. 대한노총서 홍국봉기민 동정 5분간 파 업		
1956	1956. 5.15. 대구개표중단 사건, 19일 이승만 장면 부통령당선 선언으로 마감	1956. 2. 1. 대한방직(구 조선방직) 집단해고 반대 와 이용노조 민주화 투쟁 대한 노총 대구지구 연맹 결성.		
1957	1957. 1. 국민투권옹호투위서 이내무장관 불신임 안 제기와 김치안국장 고발 등 결정 1957. 3. 보사부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한방 직을 고발			
1958	1958. 1. 22. 대구서 보안법 발효후 첫 데모사건 발생. 1958. 7. 대구 갑,을,병 각구 투표함의 검표완료 (원고측 승) 1958. 7. 영주구의 투표함 보전 창구 습격과 투표 함 바꿔치기에 가담했던 신봉균 형사와 상사 를 대검에 고발	1958. 1.13.대구 이용사노조 파업, 업주와 수입분 배 5:5 비율, 근로시간 단축 요구.		

	1958. 9. 민주당 영일을 개선서 부족표 3,702표를 발견하여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성명 발표. 1958.12. 보안법 반대 투쟁위원회 발족 1958.12.25. 민주당경북도당, 24파동(국가보안법 파동)항의 가두데모, 우중 데모		
1959	1959. 1.14. 민주당경북도당, 24파동 항의 재차 가두시위, 입문석위원장 등 10여명 속 1959. 4. 대구지법 대구병구 부청 개표 사건으로 이우출 피고 등에 실행 인도하고 법정서 구속 대구 울구 사건에는 전원 징역 4월에 집유 1년 언도 1959. 5. 조준영대구시장 시의의 예산안 심의 거부로 예산 원안대로 성명/대구시의 조시장의 불신임안 가결/조 대구시장 시의 해산 요구하겠다고 언명/대구시 의장 대구시의회 소집 요구에 불응/조대구시장 대구고법에 행소 제기	1959. 2. 5. 문경탄광 노동자 체불임금 청산요구 농성투쟁 1959. 8.27. 달성광산 노조간부 부당해고 철회 쟁의 1959.10. 대구 합동직물 노조 일요휴무요구 쟁의	
1960	1960. 2.28. 2·28학생시위 1960. 3. 1. 인권옹호연맹 왜란 린치 사건 현지조사 마치고 한미국 원수에 행정형정체결 등을 촉구하는 5개항의 메시지 채택 발표/ 지난 12월 12일 발생. 1960. 3.16. 포항고교 2백 명 [학원에 자유를 달라]는 데모 전개. 1960. 3.16. 학생데모대 수도산에 집결한 후 덕산동을 거쳐 중앙로타리까지 [학원에 자유를 달라], [민주당 강연회 때 왜 우리를 3시간이나 감금했느냐]는 등 구호를 외치면서 데모를 전개 1960. 4.12. 민주당 경북도지부 대안동 당사에서 풍선데모, 규탄대회 강행 결의, 11일 저녁부터 당사에서 백여 명 농성. 1960. 4.13. 대구의 민주당 경북도지부를 경찰이 포위, 대구의 데모 좌절 1960. 4.18. 민주당경북도당 주취 데모 좌절. 1960. 4.19. 청구대, 3백 명 3·15부정선거를 규탄	1960. 1.13. 화신공업사 종업원 백여 명 노임달라고 야반까지 아우성. 1960. 1.23. 대구전매청 노동자 240명 감원하라는 본청지시에 정면으로 항의 1960.5.07. 대구 교원노동조합 창립(대구상고 강당, 위원장 김장수, 대구지역 중, 고 교사 284명 참가) 1960. 5.14. 대구전매청 천 7백 공원 전매청장 사퇴요구 시위 전개 1960. 5.20. 대구전매청 천여 명이 생산국장 사퇴요구 시위 전개 1960. 5.27. 대구전매청 노동자 2명의 부당해고 철회 요구하며 작업 중단. 1960. 6.14. 제일모직 대구공장 여공 400여명 부당노동행위, 노조이용화 중지요구단식투쟁 돌입 1960. 9.16. 대구 시내 버스, 택시 880대 2시간 총파업	1960. 5. 7. 대구 중등교원 노동조합 결성(대구상고/ 대구 초등교원 노동조합 결성(대구초등학교) 1960. 5.24. 교원노조 경북지구 연합회 결성(종로 초등학교) 1960. 6.13. 교원노조 "과도정부 규탄 성토대회" (대구역전 광장) 1960. 6.26. 시내교원노조원 5백여 명 모여, 해체 반대성토대회, 현행법상 합법적인 존재, 3항목의 결의문도 채택 1960. 7. 3. 교원노조 전국 대표자 회의(청구대학 현, 밀리오레 터) 1960. 8.11. 경북교조, 노조간부의 유배인사발령에 대한 반대투쟁에 돌입. 두 시간에 걸쳐 데모 1960. 8.16. 경북교조연합회, 조준영경북지사를 상대로 대구고법에 행정소송 제기/조지사의 교조탄압, 비민주처사를 통박, 사대당, 반혁규탄대회서, 대구역전 광장.

	하자! 도청으로 가자"며 시위. 1960. 4.20. 4·19희생자를 돕기 위한 위문금 가두모금을 벌임. 1960. 4.19. 경대 교수단 시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확립을 약속. 1960. 4.19. 경북대 시위, 3·15선거 체질시, 구소 학생 식방, 합법 데모 보장 요구 시위. 1960. 4.20. 계엄령 아래 동산로타리에 집결. 의대생이 합세하여 구 2군사령부 앞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농성 데모 1960. 4.20. 대구대, 300여 명 교내 운동장에서 출발하여 동인동, 삼덕동으로 가두 시위 전개 1960. 4.21. 계엄사령부 대구 대전지구의 통금 2시간 단축 1960. 4.25. 영주에서 데모 발생 1960. 4.26. 경북대, 청구대 교수데모, 이승만 하야 요구, 대구·포항·경주·울릉·영천 등 부정선거규탄 시위 1960. 4.26. 비상계엄령이 실시된 26일 밤 시위대 신도환씨 집 등 파괴 1960. 4.30. 대구공고, 학교책임자 물러가라 1960. 5. 1. 대구에서 국회해산 요구 데모 1960. 5. 2. 대구 소재 각 대학대표자회의를 열고 대구교수협회를 결성 1960. 5. 3. 경북대 의대생들 농성에 돌입 1960. 5. 3. 영남대 문리대 교수회의에서 학장 직선. 권영규교수(51, 영문학)를 학장으로 선출 1960. 5. 9. 경북대 의대생 3백여 명, 전대미문의 퇴학식. 1960. 5.13. 오성중고 학생들 교장과 교감 사퇴요구 농성투쟁 [학원의 기업화 배척] 1960. 5.17. 재구혁신세력의 규합추진체인 [한국 혁신세력집결 대구축진회]결성대회 1960. 5.30. 대구대생 천여 명 이승만의 망명 방조	1960. 9.26. 부산·대구지구 2천 5백여 명의 노조원, 노동법개악에 반대하여 극한투쟁으로 단식투쟁에 돌입. 1960.11.17. 대구전매청 노조 집단해고 반대 단식투쟁 1960.11.25. 대구전매청 박영달청장 축출데모로 변모, 해고조치는 철회 1960.12.15. 대구역석탄하역노조 임금문제로 투쟁 결의. 1960.12.16. 대구역석탄하역노조파업 입환선 막고 항거.	1960. 8.25. 경북교조, 대구역 광장에서 부당인사 조치에 항거하고 총사퇴를 결행/ 대구고법, 경북교조가 제기한 부당인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1960. 8.20. 교원노조 탄압반대 총궐기대회(달성 공원) 1960. 8.25. 경북교조, 대구역 광장에서 부당인사 조치에 항거하고 총사퇴를 결행/ 대구고법, 경북교조가 제기한 부당인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1960. 9.26. 노동조합법 개악반대투쟁 단식농성 돌입 1960. 9.30. 교원노조연합회, 단식농성투쟁 해산 지시
--	---	--	---

<p>허정과정규탄 대회 개최. 1960. 5.30. 대구에서 천여 명 학생들, 이승만 망명 방조 규탄대모 감행. 1960. 6.16. 경북 월성군내 4개 면민 김하중 의 75명, 전민의원 이협우를 살인강도죄로 서울 지검에 고소. 1960. 6.18. 경북대 [민주선거촉진학련]대동 1960. 6.23. 4·19대구학생자 영령 위령제(대구중 합운동장) 1960. 7.12. 대구지법, 경북의대사건 주도학생 18 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1960. 7.28. 서울대 국민계몽대, 경북대, 구대, 정 대 등 4개 학교 학생이 반혁명, 부패세력 대두 봉쇄, 일당 독재 배격 대회 개최. 1960. 8.10. 경북 영양군에서 반혁명을 규탄. 1960. 8.30. 대구지검, [4.26]김친 발표사건 피고 강병기에 사형을 김두현, 정문용, 김준섭에 무 기를 각각 구형. 1960. 9.13. 대구지법, 강병기 등 4명의 발표경관 에 대해 징역 15년 언도. 1960. 9.15. 대구지검, 전 민의원 이협우 등 2명을 양민학살혐의로 구속. 1960. 9.24. 고려대에서 전국대학생시국토론회 열림. 민족주의적인 중립화통일운동을 주장. 1960. 9.28. 대구시내 전중고교생들, 교사들의 단 식투쟁에 호응하고 공동 단식투쟁에 돌입. 1960. 9.29. 대구 교원노조 단식투쟁으로 187명 줄도, 12명 입원 / 전국교원노조연합회 대의원 대회 개최. 1960. 9.30.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자주·평 화·민주의 통일원칙 발표. 1960.10. 2. 효성여대 분규 격화. 1960.10. 9. 6대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만 폭발. 경북 등지에서 규탄대모 발생.</p>			
---	--	--	--

<p>1960.10.22. 반민주 반혁명 제거 표방, 경북시국 대책위원회 발족. 1960.10.30. 부산에서 [민족민주청년동맹] 주최로 국토통일방안 강연회 및 통일방안 투표 실시 1960.11.10. 경북대 민족통일촉진학생연구회 결 성. 총무·통제·계획·선전·학술·회무· 조직 등 7개 위원회를 두기로 결의. 1960.11.13. 사치규탄 외친 통일, 경북시국대책위 원회 개최. 1960.11.18. 대구전매청 정식쟁의에 돌입. 1960.11.22. 대구전매청 해고노동자 단식투쟁에 돌입, 3백 50여 명 여성노동자 시위. 1960.11.26. 경북대 민족주의학생운동협회 결성. 정당성 배격, 민족주의의 주체의식 회복. 1960.12.29. 데모로 맞은 대구시의, 반혁명 타도 절규, 부녀자들 폭행한 판의원 축출 요구</p>			
<p>1961. 1. 민주민족청년동맹 결성 1961. 1. 5. 민자통,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는 통 일선언서 발표. 1961. 1.15. 민족통일경북연맹, 전국통일추진통 일단체준비결성대회에 참가. 경북지구민주민 족청년동맹도 참가. 1961. 1.25. 민족계몽협회 경북고교지부 통일우 선을 주장. 1961. 1.26. 출장소에 쌀달란 데모 각처서 계속 1961. 2.13. 민족일보 창간 1961. 2.18. 백탁준 이재형 두 의원의 공민권 제한문 제 논란. 16개 정당 사회단체 [2·8한미경제협정 반대 공동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선언문 발표 1961. 2.22. 대구, 부산에서 한미경제협정체결을 반대하는 시위 발생. 1961. 3. 2. 남북한의 즉각 통일촉구, 민통대표 유 엔감견 주장, 혁신계 달성공원서 3·1절 기념 1961. 3.11. 조국통일예의 선봉이 되자, 제34회 노</p>	<p>1961. 1.17. 대구역선탄하역노조, 파업을 결행키 로 [철로]투위 일괄 사표 내고 결의 1961. 3.19. 경북노동조합연합회 대의원 대회, 2 대야법반대 결의문 채택 1961. 3.28. 한국노련경상북도노조연합회 보안법 개악 및 데모규제법반대투쟁위원회</p>		<p>1961. 1.24. 경북교조, 신고증 쟁취 등 투쟁방안 결성 1961. 3. 5. 2대야법 결의문 채택 1961. 3.20. 역전광장에서 교원노조지원투쟁위원 회의 햇불 데모 개최 1961. 4.10. 한국교원노동조합전국총괄기대회 4· 2데모원 석방문제로 1961. 5.18. 교원노조간부 전원 연행. 구속</p>

	<p>동철 대구행사상대</p> <p>1961. 3.15. 이대악법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 결성. 경대, 구대, 청대 등 참여.</p> <p>1961. 3.18. 이대악법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 역전 광장에서 이대악법 규탄대회 및 햇불 데모 전개.</p> <p>1961. 3.21. 대구사범 전교생 등교거부, "반민교장 물러가라"고 졸업식 하루 앞두고 학생대회 결의.</p> <p>1961. 3.21. 대구역 광장에서 사회당 통사당 민민청 통민청 등이 공동으로 2대악법반대 시민결기대회 주최, 1만 5천명의 시민 참가.</p> <p>1961. 3.22. 역전광장에서 한미경제협정반대결기대회 개최.</p> <p>1961. 3.24. 이대악법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 구속학생 석방·악법철폐 요구 켈기대회, 3만 명 참가하였고 대회 후 햇불데모 전개.</p> <p>1961. 3.25. 역전광장에서 민주민족청년동맹주최의 통일축진운동대회 개최.</p> <p>1961. 3.28. 대구학생들 상경, 악법반대에 서울학생들과 합류</p> <p>1961. 3.28. 민주수호사회단체연합회의 선전 데모</p> <p>1961. 3.28. 종합운동장에 2·28학생기념대회 개최.</p> <p>1961. 4. 1. 노련과 악법반대투위 수성천서 2대악법반대 규탄대회</p> <p>1961. 4. 2. 대구역전 이대악법 반대 규탄대회</p> <p>1961. 4. 4. 35명 전원에 영장발부, 대구지법 42대모 공무원 집행방해로(강창덕 권오봉), 42항거학생 간부와 혁신계 인사, 정만진(구대), 도예중-민민청, 4·2데모주동 학생투위간부 13명도 포함</p> <p>1961. 4. 4. 악법반대공동투위 수성천번서 6일 하오 다시 켈기대회 개최 계획</p> <p>1961. 4.14. 5만여 학생 동원, 악법투위 정만진 구속에 (14일) 항의 데모.</p> <p>1961. 4.15. 악법반대학생데모 3차로 수성서</p>			
--	--	--	--	--

	<p>1961. 4.19. 2·28기념탑, 명덕로타리에 착공.</p> <p>1962년 4월 19일 제막식</p> <p>1961. 4.21. 민족통일경북고준비위원회 결성, ① 자주성에 입각한 남북통일, ② 학생의 시대적 각성, ③ 사회악의 개혁</p> <p>1961. 5. 3. 절량부녀 오백여명 모여, 맨발의 질환자도, 실업자협회 결성</p> <p>1961. 5.11. 대구지역 학생등 침묵데모 행진, 남북학생회담지대회마치고, 만경관앞소개도로.</p> <p>1961. 통일민주청년동맹 결성</p>			
<p>1963</p>	<p>1963. 3.21. 군정연장 반대 투쟁 시위(민주당 경북도당사)</p> <p>1963. 3.23. 군정연장 반대 시위, 대구역 광장/군정연장 반대 경북투위 결성 데모</p>			
<p>1964</p>	<p>1964. 3.25. 경북대, 대구대, 한사대 등 학생들이 [한일회담 즉시 철회하라]며 시위 전개.</p> <p>1964. 5.16. 경북대 군정연장 반대 시위.</p> <p>1964. 5.25. 경북대 법정대학생 6·3사태에 따른 난국타개 성토대회 개최</p> <p>1964. 6. 4. 경북대 한일회담 반대 가두시위.</p> <p>1964. 8. 1차 인민혁명당 사건(도예중, 정만진 등)</p> <p>1964. 8. 5. 박정권 하야 요구 대학생 데모 발생, 정부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령 선포, 민정당 도지부 자폭 결의</p> <p>1964.12. 대구지역 야당 정치인 구구회(九丘會) 결성</p>			
<p>1965</p>	<p>1965. 4. 2. 경북야당계, 굴욕외교 반대 투쟁</p> <p>1965. 4.21. 경북대 법정대생 한일협정비준 반대 가두 시위.</p> <p>1965. 6.23. 경북대 휴교 중에도 한일협정비준 반대 가두 시위.</p> <p>1965. 7.10. 한일회담 인준 반대 대구총결기대회, 대구종합운동장</p>			

1967	<p>1967. 경북대 正思會 조직 활동 중, 1967년 이전 부터 활동, 4·19직후 결성된 맥당(麥黨, 보릿 고개가 6·3사태로 해산된 뒤 결성된 경북대 내 동아리).</p> <p>1967. 4. 구구회 3주년 기념 시국대토론회 개최</p> <p>1967. 6.14. 대구대 200여 명 [6·8 부정선거 무효] 라는 현수막을 내세우고 시위 전개</p> <p>1967. 6.15. 대구대 6·8 부정선거 반대 재선거, 구속학생 석방과 휴교조치 철회 요구하며 시 위 전개.</p> <p>1967. 7. 경북대 6·8부정선거 규탄시위</p> <p>1967. 7. 대구지역 야당 정치인 장백회(長白會) 결성</p>			
1968	1968. 8. 통일혁명당 사건(김종태, 김질락 등)			
1969	<p>1969.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발생</p> <p>1969. 혁신계가 중심이 되고 보수야당이 참여한 가운데 반독재재야단일후보추진위원회를 결 성하고 윤보선 후보단일화에 성공.(대표 유시 백, 대변인 강창덕)</p> <p>1969. 3선 개헌 반대 운동</p> <p>1969. 7. 4. 경북대 학기말 시험 거부하고 3선개헌 반대투쟁을 위한 가두시위 전개.(학교 측에서 원리연구회, 정사회, 현대사상연구회 등 3개 동아리의 승인을 취소)</p> <p>1969. 8.28. 경북대 3선개헌반대성토회 개최.</p> <p>1969. 9. 1. 경북대 개학과 동시에 시험 거부하고 3선개헌반대를 외치며 가두시위 전개, 단식투 쟁 전개.</p> <p>1969. 9. 9. 경북대 의대생 개헌반대성토회를 개최하고 삼선개헌반대, 휴업령철회, 치벌학 생구제 요구.</p> <p>1969.11. KSCF 경북지구 결성, 각 대학 Y의통합</p>			
1970	1970. 경북대 정진회(正進會) 결성.	1970.11.13. 진태일 열사 분신		

	<p>1970. 계명대 흥정회 결성</p> <p>1970.12. 7. 경북대 3일간 총학생회, 6개 단대와 교양과정부학생회 공동주최로 교련강화반대 성토회 개최</p>			
1971	<p>1971. 4. 8. 경북대 학생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교 련전면폐지투쟁 결의.</p> <p>1971. 9. 1. 한국문제연구소경북지부 주최 남북가 족찾기운동 대토론회, 대구백화점</p> <p>1971. 9. 5. 지자체추진투쟁위원회, 현대예식장</p> <p>1971.10. 민주수호협의회경북지부 결성, 대구백 화점 717호</p> <p>1971.12. 대구지역 야당정치인 일맥회 발족</p> <p>1971.12. 대구지역 각 대학에서 교련반대성토회 회 계속 벌어짐.</p>			
1972	<p>1972.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p> <p>1972. 영남대 박준성 반공법 위반으로 재판</p> <p>1972. 1.29. 육군보안사, 서울·대구 등지에서 최 영호 경북대 교수 포함한 대남간첩 7개망 23명 검거 발표</p> <p>1972. 2.22. 대구일보 폐간, 5월 2일 대구경제 폐간</p>			
1973	<p>1973.10.30. 경북대 법대, "언론인은 중립을 지켜 야 하며 정의의 필봉을 들어야 한다"며 30여 명 시위. 정의과 2년 강기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p> <p>1973.11. 5. 경북대생 200여명(*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는 300명으로 기재), "언론자유 보장" 요구 시위하며 반유신운동 전개. 농대 2년 최 문수 구속.</p> <p>1973.11.13. 경북대 법대 정의과 4년 이강철, 교내 시위와 관련 구속.</p> <p>1973.11.26. 경북대 총학생회, 총장면담, 구속·수배된 학생구제책 논의. 김영희 총장, 형사문 제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p>			

	<p>1973.11.29. 영남대 상경대생 160여명 시행중인 기말고사 거부. 지난달 9일 모종의의로 구속 기소된 동료 학우 재판결과 기다리며 시험거부</p> <p>1973.11.30. 경북대, 100여명 학생 교내 로타리에서 "언론자유 보장", "학원사찰 즉각 중지" 등 결의문 채택, 교내시위 시작 농성</p> <p>1973.12. 1. 경북대, 1,000여명 학생 오전 10시 교내 로타리에서 결의문 채택, 도청 향해 200m 진출하다 경찰 저지로 연좌시위, 페퍼프고와 최루탄에 맞서 투석전.</p> <p>1973.12. 1. 영남대, 학생 500여명 교내시위 후 가두진출 시도, 100m 진출하다 경찰제지로 교내 시위</p> <p>1973.12. 3. 경북대, 200여명 "조기방학철회" 등 7개항 결의하고 시위.</p> <p>1973.12. 4. 영남신학교, '구국기도회' 갖고 시위, 43명이 연행</p> <p>1973.12. 4. 효성여대, 학생 300여명 교내 성모상 앞에 모여 결의문 채택, 검은 리본 달기로 결의, 가두진출시도, 경찰제지로 도서관에서 5일까지 단식농성 돌입</p>			
1974	<p>1974. 경락연구회(經絡研究會) 결성, 대구·부산·광주지역 민주인사 박정권 결사반대 취지.</p> <p>1974. 반유신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p> <p>1974. 3.15. 중앙정보부, 통혁당재건사건 발표</p> <p>1974. 3.21. 경북대생, 반독재민주구국투쟁위원회 명의로 '반독재 민주구국 선언' 발표.</p> <p>1974. 4.25. 인혁당사건,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원회 지목. 1975. 4. 8. 대법원, 사형 8명, 무기 7명, 징역 20년 4명, 징역 15년 판결, 동년 4월 9일 사형 집행</p> <p>1974.11. 5. 영남대생 700명이 11시부터 교내시위를 벌이다 오후 1시 학교안 교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가두진출을 시도</p> <p>1974.11. 6. 영남대생 300명이 오전 11시 반 교내</p>	<p>1974. 2.03. 대일직물 종업원 노조결성.</p> <p>1974. 2.20. 동일철강 복귀만행 규탄대회(북한의 남한선박 공격)</p> <p>1974. 2.22.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인하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 구 대동신철공업사 노동자 정세달 자살사건</p> <p>1974. 3.13. 전국자동차노조 경북지부, 임금인상 결렬</p> <p>1974. 4.15. 노동청, 한홍물산 대표구속</p> <p>1974. 4.30. 노조원 4만 7천 작년대비 약 1천 7백명 늘어</p> <p>1974. 5.08. 철도노조 영주지부, 위수수당 인상촉구.</p> <p>1974. 5.11. 영화염직 대표구속, 종업원 노임체불과 흑사.</p>		

	<p>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후 언론자유수호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문을 나서 50미터 가량 가두시위를 벌임. 경찰의 제지로 다시 교내로 들어가 오후 2시까지 연좌시위를 벌임. 학생 14명이 연행</p> <p>1974.11. 7. 영남대 법대생 65명이 낮 12반 스쿨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와 대구여고 앞길에 차를 세운 뒤 차안에서 휴강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다 오후 1시 20분 귀교</p> <p>1974.12.27. 대구상이군인 김영삼 신민당총재 대금호호텔 연금사건 발생, 28일 신민당경북도당 피습하여 서류 일체를 불태워 버림.(김영삼의 김일성 면담용의 발언이 빌미)</p>	<p>1974. 5.27. 대성양산 종업원, 밀린 임금 지급요구.</p> <p>1974. 7.19. 대농 노사분규 심화(대항방적 공장노조)</p> <p>1974. 8.10. 경북 상주, 노임을 채불 한 채 문 닫아 버린 생사공장.</p> <p>1974. 9.19. 체불임금 신고센터 개장 첫날 5건 접수</p> <p>1974.10.25. 매일신문기자일동, 자유언론선언결의</p> <p>1974.10.25. 기자회견 경북도지부, 언론자유선언 지지</p> <p>1974.11.04. 전국관광노조 경북지부, 노조가 업주측에 생계보장 요구, 결의문 채택.</p> <p>1974.11.30. 한국기자협회, 대구한일 호텔에서 언론자유 제도적 개선요구, 결의문 채택.</p> <p>1974.12.24. 전국금속노조 경북지부, 노임체불에 대해 노조서 고발조치.</p>		
1975	<p>1975. 3. 3. 민주회복국민회의 경북도지부 결성, YMCA회관</p> <p>1975. 6. 3.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학생총연맹 사건으로 경북대에서는 여순등을 비롯한 22명이 구속되어 최고 10년의 징역을 언도받음.</p> <p>1975. 6.16. 계명대학 [4·19선언문] 낭독 및 고 김상진군 유서 배포사건, 학생 6명 구속</p>	<p>1975. 1.15. 관광노조 경북지부, 노조서 요식조합을 고발 단체협약 불이행.</p> <p>1975. 1.15. 기자회견 경북지부, 동아와 행동함께 -3개항 결의</p> <p>1975. 3.10. 대구노동절 기념식, 대구 아세아 극장.</p> <p>1975. 3.10. 경북 영주 천주교회,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p> <p>1975. 4.25. 한국기자협회 경북지부, 기자회견 경북지부 성명-노골적 탄압 통탄, 성명서 발표.</p> <p>1975. 5.10. 새한상역 사원, 체임지불 요구파업.</p> <p>1975. 5.17. 신한금고 계원, 신한상호신용금고에서 계금지급요구 농성(점거농성).</p> <p>1975. 8.18. 대광보일러 제작소, 노조 만들자 휴업.</p> <p>1975.11.01. 전국연합노조 동산병원분회, 노사협의 이행 및 임금인상조정 신청</p>		
1976	<p>1976. 1. 경북대생 정화영·김영준 구속사건</p> <p>1976. 6.15. 계명대 '4·19 선언문' 낭독 및 고 김상진 유서 배포 사건. 6명 구속(백현국(계명대졸,</p>	<p>1976. 4.15. 전국운수노조 경북지부, 경북도에 임금인상 조정신청.</p> <p>1976. 7.13. 구미공단 거의 노조결성 안돼, 저임해</p>		

	고교교사), 서석국(계명대 휴학, 군인), 강봉기(계명대 졸, 방위병), 김진태(계명대 휴학, 방위병), 서태열(계명대), 장의식(계명대), 백현국(반공법 위반, 징·자 3. 6), 서석국(군재 징 10), 강봉기(군재 징 10), 김진태(군재 징 10), 서태열(징·자1), 장의식(징·자 1)	소에 지장. 1976. 7.14. 노동청대구지방사무소, 폭행 산업주 구속. 1976. 7.21.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경북본부, 노동권 침해 경북이 가장 많아. 1976. 7.23. 영천 달성산업공장, 달성산업 종업원 임금체불로 파업. 1976. 2.26. 회사간부가 여공폭행		
1977		1977. 3.21. 삼광제지공업사, 노조결성 종업원 8명 부당해고. 1977. 4.26. 화학노조 경북지부, 코도광학사에서 노조활동 종업원 폭행, 저임금 회사고발. 1977. 6.23. 자동차노조경북지부, 영화여객주식회사, 노조분회장 폭행 근로기준법위반 고발키로. 1977. 6.29. 금속노조경북지부, 삼화기계제작소에서 노임체불 및 부당해고 삼화기계를 고발. 1977. 7. 6. 성신직물 종업원, 노동청 대구지방사무소로 물려와 노동청 체불노임 해결 미루자 물려와 항의(집단항의). 1977. 7. 7. 대선섭유 대표 부도내고 공장관 후도주. 1977. 8. 4. 섬유노조 경북지부, 한일면직 노조결성 승인받아. 1977.09.24. 영남생사주식회사(영천) 종업원, 영남생사 체불임금지급하라. 철야농성. 1977.09.25. 영남생사주식회사 종업원, 도로점거농성. 1977.10.11. 섬유노조경북지부, 한일면직주식회사에 대해 단체 협약 불이행과 노사조정부시한과 관련하여 업주고발. 1977.11.07. 화학노조경북지부, 화성주식회사의 종업원사무실 감금과 노종탈퇴강요에 대해 회사 고발.	1977. 4.30. 안동교구 사무국에 농민사무부 설치 (담당 상근 실무자 정재돈·비오) 1977. 8.24. 한국 가톨릭 농민회 경북 연합회에서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협의회로 분리, 조직 1977.10.18. 농민·노동자·양심수인을 위한 기도회(안동 문화회관). 사무국장 정호경 신부, 목성동 주임 류강하 신부 구속.	

1978	1978. 경북대내 예목회 결성 1978.10. 경북대 1만 명, 긴급조치 해제, 학원자유, 유신반대를 외치며 대구역에서 시위. 1978.10. 영남대 국사학과, 철학과, 사학과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연구회 결성. 1978.11. 2. 경북대 [민주국선언] 사건, 경북대생 1,000여명이 유신철폐와 총장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교내데모. 4명 구속(최용식(사회4), 김동호(사회4), 장수원(철학4), 류시대(도서관 3). 긴급조치로 전원 징역 2, 자격정지 2] 1978.11. 7. 경북대생 [제2, 78경북대 국국선언문]을 교내 시계탑 앞에서 낭독하고 가두시위 전개. 경북대생 2,000 여명이 대구시내 중심가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데모, 행정권의 퇴진, 구속학생 석방, 어용교수 사퇴 등을 요구. 경찰과 격렬한 충돌, 파출소 1개 파손, 경찰차량 8대 파괴, 학생과 경찰 상당수 부상. 약 200여명이 연행, 7명 구속, 21명 구류처분	1978. 1.21. 아리아약기 근로자 5명 구타와 지임금 항의 인질농성사건 1978. 1.24. 연합노조경북동해지역지부, 동방운수의 부당해고, 수당지급안아 회사고발. 1978. 6.01. 영남생사종업원, 섬유노조경북지부 사무실에서 체임요구 단식농성. 1978. 6.12. 태영염직종업원, 공장안에서 체임요구 농성. 1978. 9.15. 동양섬유종업원, 회사에서 체임지급요구 항의소동. 1978.12.28. 대원건설인부,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인부체임요구 항의농성.	1978. 5.24. 농민을 위한 기도회(안동 문화회관, 300명) 1978. 9. 5. 쌀생산비보장 서명운동 전개(7,682명 서명) 1978.12.27~28. 가톨릭 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 창립총회(안동 문화회관, 174명)	
1979	1979. 경북대내 여명회 결성(정확한 결성 시기는 알지 못함) 1979. 1. 1. 안동에서 신부, 신도 등 가두시위 1979. 1. 4.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구속자 80여명 교도소내 수감자에 대한 구타중지와 차별대우 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1979. 5. 5. 오원춘 실종사건발생 1979. 5.10. 대구 계명대 축제 사건, 축제 때 기독교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연극반원들이 이근삼 작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를 공연 중, 공연 내용이 사전 검열된 것과 다르다하여 출연자들이 현장에서 끌려나오고 기독교학생회 회장 권오원이 학교직원에 구타당함. 2주일 후 학교당국은 이를 문제 삼아 권오원, 이상운, 박민서, 김종성, 서순주 등 5명에 정학처분.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여 '처벌취소'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	1979. 3.10. 경북실내체육관, 근로자의날 34돌 기념식. 1979. 4.18. 한일합섬여종업원, 회사마당에서 임금소급인상요구. 1979. 8. 7. 쌍마섬유, 노조결성에 보복 공장주 고발.	1979. 1.23. 교구 사제단 영양 청기 감사파해 현장 방문 1979. 2.13. 청기 감사파해 1차. 보상금 받음 1979. 5. 5. 오원춘 납치 1979. 6.25. 오원춘 납치사건 진상조사 시작 1979. 7.25. 가농 권총대 회장, 정재돈 총무 대축 현지 교육장에서 경찰에 연행 1979. 7.27. 경찰 안동교구청사 난입, 정호경 농민회 지도신부 연행 1979. 8. 6. 오원춘 사건 특별 기도회(목성동 성당, 김수환 추기경 미사 집전) 1979. 9. 4. 오원춘 사건 첫 공판 1979. 9.25. 오원춘 사건 2회 공판 1979.10. 8. 오원춘 사건 3회 공판 1979.12. 2. 오원춘 사건 관련 구속자 석방	

	<p>가기로 하였으나 학교직원들에 의해 유산됨</p> <p>1979. 5.15. 영남대 전통민속반연구회 탈춤사건 발생/ 대학축제에서 탈춤공연을 벌이다 [민주주의 장례식]을 하려하자 현장에서 8명이 경찰에 연행됨. 이태현 등 2명 구속, 8명 무기정학.</p> <p>1979. 5.15. 영남대 탈춤 공연 사건, 학교축제 행사 중 '민주주의 장례식' 거행. 8명 연행, 2명 구속, 8명 전원 무기정학.[이태현(국문4), 김재호(국문3), 김조9호, 김재호, 이태현(이상, 징.자1)]</p> <p>1979. 8. YH무역사태, 신민당 경북도지부 항의 시위, 단식(한치만)</p> <p>1979. 8.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반대 규탄대회, 신민당경북도지부</p> <p>1979. 9. 4. 계명대 1500명 [이 어둔 역사의 조타수가 되지 못한다면]이라는 선언문을 낭독후 [유신철폐] 2km가두시위 / 경북대 영남대 유신철폐요구 선언문 낭독 / 경북학생협의회구국선언문 사건 발생, 긴급조치 9호 이후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 임광호군 7명 구속 / 대구교도소내 긴급조치 위반수감자 15명 인권유린 항의 단식 투쟁</p> <p>1979. 9. 4. 대구시내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 등 3개 대학 연합시위.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경북학생협의회]를 결성. 권오국, 임광호, 하종호, 임진호, 정동남 등 5명 구속.</p> <p>1979.10.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p> <p>1979.10.22. 경북대학교 계속되는 시위로 1주일간 휴교, 가정학습 실시</p> <p>1979.10.23. 영남대학교 계속되는 시위로 휴교</p> <p>1979.10.24.(또는 25) 계명대 2천여 명 데모, 유신철폐 요구.</p>			
1980	<p>1980. 대구 YMCA노동형제단 결성.</p> <p>1980. 대구기독교청년협의회(EYC, 1984년 재건총회 때부터 활발히 활동)</p>	<p>1980. 쌍마섬유, 아세아산업 등 섬유, 금속관련 신규노조 결성</p>	<p>1980. 4.11. 민주농정실현을 위한 전국 농민대회 (대전, 가농 95명)</p> <p>1980. 9.20. 정계돈 총무 광주 항쟁 관련 포고령</p>	<p>1980. 4.19. 경북대 민속문화연구회 4·19기념 냄 새굿놀이</p>

	<p>1980. 4. 경북대 [4·19 제20주년 기념제] 개최. [제2 4·19선언문]채택.</p> <p>1980. 4. 영남대 학원민주화를 위한 학내 시위, 거의 매일 공청회와 집회 개최.</p> <p>1980. 4.16. 대구시내에 병영집체훈련반대 유인물 사건 발생, 계명대 등에 [전국 대학인에게 고함] 유인물이 살포돼 1명 구속.</p> <p>1980. 4.25. 경북대 [구속학생석방대책위원회] 결성. 5월 6일부터 시계탑에 [민주벽보판]설치.</p> <p>1980. 5. 계명대 시국토론회 개최.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축제기간을 민주화투쟁기간으로 선포. 전두환퇴진, 언론자유보장, 노동삼권보장 요구.</p> <p>1980. 5. 양서조합 두레회 탄압.</p> <p>1980. 5. 3. 경북지구계엄분소 보통군법회의는 고 박대통령 조상 훼손, 이현근, 하종호 등 두 경북대생 석방.</p> <p>1980. 5. 9. 경북대 제1차 학생총회를 통해 [시국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결의, 5월 10일 [현시국대책위원회] 결성.</p> <p>1980. 5.10. 경북대 복교생 [민주회투쟁협의회] 결성.</p> <p>1980. 5.10. 경북대생 3천여 총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학생총회 개최, 자유토론회 진행.</p> <p>1980. 5.13. 계명대 교내시위 후 가두진출 시도.</p> <p>1980. 5.14. 경북대 민주회투쟁협의회 및 총학생회 연합으로 [비상계엄해제, 노동 3권보장] 등을 외치며 가두시위. 이 시위는 5월 17일까지 지속됨.</p> <p>1980. 5.14. 계명대 무기 휴교, 계명대생 교내 시위 이후 가두시위 전개. 삼각로타라-2·28기념탑-대구백화점</p> <p>1980. 5.14. 계명대, 한사대, 영남대 등 3개 대학생 2천여 명, 경찰차량 파괴 등 시위</p> <p>1980. 5.14. 대구지역 대학생 가두데모, 경북대, 영남대, 동국대 경주대, 계명대, 한사대.</p> <p>1980. 5.14. 영남대학교 학생 1만여 명 [계엄령철폐</p>		<p>위반으로 한 달 간 합동수사본부에구속</p> <p>1980.11.28. 추수 감사제 및 농민대회(예천성당, 500명)</p>	
--	---	--	--	--

	<p>페] 요구. 경산에서 대명동캠퍼스까지 이동하며 시위.(교문-경산-남부정류장-반월당)</p> <p>1980. 5.15. 경북대생 3천여 명 학생회관앞 광장에서 시국성토대회 개최. [비상계엄해제하라] 구호 아래 가두 진출 시도.</p> <p>1980. 5.16. 전국 55개대학 학생대표 제1회 전국대학총학생회회장단 회의 개최. 현시국과 학생운동 방향에 대한 결의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경북대, 계명대 등이 참가.</p> <p>1980. 5.17. 자율화서 민주화까지 숨가쁜 대학가. 학원자율화/학도호국단철폐/어용교수 퇴진/사학의 족벌체제 퇴진/계엄 철폐/병영집체훈련/민주화촉진</p>			
1981	<p>1981. 3.24. 경북대 공대 강의실에 비상계엄 비난 유인물 배포.</p> <p>1981. 4.13. 경북대에 반정부유인물 살포됨.</p>		<p>1981. 7. 1. 안동가톨릭농민회관 기공식</p> <p>1981.11.18. 안동가톨릭농민회관 축성 미사 및 추수감사제(농민회관장 권종대 임명)</p>	<p>1981.12.17.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결성, 창립준비위원장 이계원 선출</p>
1982	<p>1982. 4. 19. 경북대 교내에 반정부유인물 살포.</p> <p>1982.11. 2. 학원자율화 군부독재타도를 내용으로 한 [우리는 왜 끌려가야만 하나] 유인물 배포. 김상숙(생물 3), 김경복(사학 2) 구속.</p> <p>1982.11.17. 경북대 인문관베란다에서 3백여 명의 유인물을 살포하고 시위 전개. 박영아(사대역사 4), 김찬수(도서관학 4 휴학) 구속</p> <p>1982.11.18. 경북대 도서관과 취수탑 위에서 유인물 3백여 매 살포 내용은 총장사퇴와 학원자율화. 권형우(정의 4), 이병술(인문대 4)이 연행.</p> <p>1982.12. 7. 계명대에 반정부유인물 5백여 매 살포. 신기복(경영계열 1) 신재구(경영계열 1) 구속.</p>		<p>1982. 8.15. 농지 임대차 허용 법률 개정 반대 운동 전개</p>	
1983	<p>1983. 3.21. 경북대생 20명이 방학중의 활동을 조사하겠다는 이유로 학생 연행. 남영주(철학 4) 박숙자(국민윤리 4) 체적, 18명 지도휴학시키고 남학생 13명 입대.</p>		<p>1983. 5. 8. 안동가톨릭연합회보 발간</p> <p>1983. 8.14. 농협민주화를 위한 농협조합장 직선제 실시</p> <p>1983.11.16. 전국 추수 감사제 및 전국 농민대회(대전, 161명 참석)</p>	

1984	<p>1984. 5. 영대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 이 위원회는 영대민주화추진위원회로 변경. 공청회, 4·19추모집회, 춤과 노래 보급, 화형식, 광주학살사건 사진 폭로 등의 활동 전개.</p> <p>1984. 7. 전국 정의평화 실천 목회자협의회 결성. [본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경북지역의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교회갱신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그들의 역사 속에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1984. 8.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 등 3개 대학의 전두환미국방일반대 연합시위 전개.</p> <p>1984. 9. 3. 경북대 본관 앞 로타리에서 대통령 방일 반대 시위.</p> <p>1984. 9.24. 경북대 학생 2명 부당 징계에 항의 총장실 방화</p> <p>1984.11. 2.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대구지역 대학생들은 경북대 로타리에서 [학생의 날 부활 연합기념식]을 개최하고 가두시위 전개.</p> <p>1984.11. 6.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생 등 대구지역 대학생들은 계명대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투석전을 벌임.</p> <p>1984.11.13.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생 등 대구지역 대학생들은 영남대 경산캠퍼스 사회관 광장에서 학도호국단 해체식을 갖고 시위 전개.</p> <p>1984.11.26.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생 등 대구지역 대학생들은 계명대 빌라도광장에서 시국성토대회 개최.</p>	<p>1984. 한국경전기(권영숙), 대구택시노동자 총파업(5.25).</p>	<p>1984.11.20. 추수 감사제 및 경북 농민대회(다인정당, 1,300명)</p>	
1985	<p>1985. 대구·경북 민중교회 운동연합 창립. 1985. 3.29. 영남대생 3백 명 학원자율화 시위</p> <p>1985. 4.10. 경북대에서 경북·영남·계명·대구대생 3백여 명이 4개 대학연합학원민주화쟁취대회 개최.</p> <p>1985. 4.17. 고려대에서 전국학생총연합결성식 및 강제징집희생자추모비 제막. 김민석 서울</p>	<p>1985. 07. (주)아신 채불임금청산 요구 옥상에서 파업농성, 해고자복직투쟁,</p>	<p>1985.2.24. 다인협의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 지청장에게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시정 요구</p> <p>1985. 7.21. 소값 피해 보상 소몰이 시위(다인-안계)</p> <p>1985. 8.11. 벽서운동 시작</p> <p>1985. 8.15. 안동 농민회관 증축</p> <p>1985.11.19. 추수 감사제 및 농민대회(상주 서문</p>	<p>1985. 2. 우리문화연구회 창립</p> <p>1985. 6.29. 경북안동 Y교협출범(안동YMCA회관)</p> <p>1985.11. 지방사회연구회 창립</p> <p>1985.12.30. 관화시집 "분단시대" 출판</p>

	<p>대중학생회장이 전학련 의장에 선출. 1985. 4.18. 계명대생 5백여 명 총학생회 부활을 요구하며 교내시위. 1985. 4.23. 경북대에서 대구 4개 대학 3백여 명 [방일반대]시위. 1985. 5. 26. 새벽 0시 17분 농성학생들 [26일 정오 농성해제]를 발표. 낮 12시 5분 자진해서 농성을 해제하고 나오다 연행, 시립병원에 분산 수용됨. 학생들 농성해제를 앞두고 [백만학도에 드리는 글]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 [미행정부에 드리는 글] [신민당에 다시 촉구한다] [제반민주세력에 드리는 글] 등 5종의 성명발표. 1985. 5.23. 미문화원 접거. 1985. 5.24. 민정당 대구 제2지구당 사무실에 대학생 7명이 최루탄 3개를 던진데 이어 민정당 대구 제3지구당 사무실에 대학생 20여명이 투석, 최루탄가스를 던짐. 1985. 6.13. [대구민주투쟁학우일동] 명의로 '언론의 각성 촉구투쟁을 전개하며'라는 유인물을 돌리며, KBS방송국에 화염병과 최루탄을 투척. 1985.10. 7. 경북대 학원탄압지주투쟁위원회 결성.</p>		<p>동 상당, 500명)</p>	
1986	<p>1986. 2.20. 경북대 교내 도서관에서 민주개헌을 요구하는 유인물이 뿌려짐. 1986. 3.30. 경북대 18대 총학생회 출범하며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 결성. 1986. 4. 5. 대구 아세아극장에서 직선제 개헌추진대회 개최(신민당의 개헌현판식), 민통련 및 대학생 참가(4·5대구민중투쟁)</p>	<p>1986. 1. 대구경북 노동자생존권 확보투쟁위원회 1986. 2.20. 동협제작소 노조결성투쟁 1986. 7.21. 한국경전기 노동자 2명 강제해고에 항의, 복직투쟁 1986. 7.26. 3공단 네거리에서 노학연대 시위(경전기 지원투쟁). 전경버스 1대 전소 1986. 8.23. 성화화성 노동자 3명이 달구벌교회(민중교회) 행사 참석을 이유로 퇴사종용에 항의. "원상복직,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8시간노동제 쟁취하자" 주장. 회사 측은 감금 폭행. 1986. 8.26. 평화산업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 투쟁, 경찰이 주동자 연행 1986. 8.27. (주)삼부 작업조건 개선과 임금인상</p>	<p>1986. 3.30. 영양협의회 창립 및 농가 부채 탕감대회(영양성당, 200명) 1986. 4.13. 풍천 협의회 농가 부채 탕감대회(구 담백사당, 500명) 1986. 4.16. 안동교구 연합회 '농민,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 및 농가 부채 탕감' 농민 대회(안동 문화회관, 700명) 후 안동역 광장까지 시위. 수녀의 시위참여와 최루탄 처음 등장. 1986. 8. 5. 봉화에서 빛 때문에 자살한 '고 김정섭 추도식'을 개최하여 당시 농민 문제를 여론화. 1986. 8.29.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운동본부 현판식(안동 농민회관) 1986. 9. 1. 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실천 대회</p>	<p>1986. 5.10. 교육민주화 선언 1986. 9. 6. 영남권 실천자대회 1986.12.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 설립</p>

		<p>을 요구하는 노동자 해고 1986. 9.29. (주)아신 200여명 노동자 식당점거 임금인상, 이용노조퇴진 요구 농성 해고자 복직투쟁 1986.10.22. (주)동원산업 노동자 작업환경개선, 이용노조 퇴진 요구, 5명 해고</p>	<p>(의성 안계, 안동 풍천, 영양, 150여명) 1986. 9. 1~4. 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농성 (목성동 성당) 1986. 9. 3. 고문 및 미국 농·축산물 수입 규탄 대회(목성동성당, 안동 문화회관) 1986. 9. 7. 쌍호 농민회관 건립</p>	
1987	<p>1987. 3. 4. 박종철 군 추모 미사 및 고문저지대회 개최(안동 문화회관) 1987. 3. 15. 고 박종철 군 추모 미사 및 고문저지대회 개최(상주 남성동 성당) 1987. 6. 10. 고문, 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경북 북부지역 2차 국민대회 개최 1987. 6. 10.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 6월 항쟁. 1987. 6.15. 전국에서 시위 계연, 경북대생 등 1천여 명이 도심 곳곳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맞서 격렬한 투석시위 전개 1987. 6.16. 대구 시내 4개 대학 연합 가두시위 1987. 6.17. 대구 시내 5개대생 연합시위가 3일째 계속되어 시민, 학생 8천여 명과 경찰의 최루탄 7백여 발이 맞붙어 많은 부상자가 속출(학생, 시민 30여 명) 1987. 6.18. 최루탄 추방대회. 국민운동본부의 결정에 따라 전국 16개 도시 247개소에서 일제히 최루탄 추방을 위한 범국민투쟁이 전개. 1987. 6.19. 투쟁의 전국적 확산. 전국 225개소에서 79만 4천 6천여 명(경찰집계)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전개. 대구에서는 연 5일째 연합 가두시위가 전개. 1987. 6.20. 대구의 가두시위는 전날에 비해 그 규모가 한층 커지고 격렬해짐. 연 6일째 연합 가두시위가 전개되었고, 최대규모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가두투쟁과 '최루탄추방공청회'</p>	<p>1987. 5. 국민운동본부산하 노동자문제 특별위원회, 국본산하 민주노조 노동자공동실천위원회(민노공실위)는 지역 선전물 발간, 상담 및 지원 활동. 1987. 7. 1. (주)한일 안내양 120여명이 임금인상, 뺨방감시에 대한 인권보장 요구 승차거부/경북대학병원 간호과장 퇴진, 이정현 간호사 복직 요구, 90여명 단식농성 1987. 7. 2. 수정유리 체불임금, 퇴직금 청산 요구, 650명 회사마당에서 농성/조폐공사 진급동결 철폐 등 요구, 연좌농성 1987. 7.23. (주) 건화 휴가비 200%인상 요구, 파업 농성 1987. 8. 3. 동산의료원 약사 17명 근로조건 불만 작업거부 1987. 8. 4. 평화오일셀 임금 30%인상 요구, 50여명 파업 철야농성 1987. 8. 6. 문화유리 임금 15%인상 요구, 200여명 작업거부 농성 1987. 8. 8. 오성택시 LPG인하분 반영 등 18개항 요구, 쟁의 1987. 8. 9. 북부정류장 기본급 100%인상 등 요구, 매표거부 농성, 전원 사표제출/금성운수 LPG 인하분 반영 등 요구, 파업/삼화운수 임금인상 요구, 100여명 전원 파업 1987. 8.10. 신안화섬 임금차별 철폐, 상여금 인상 등 요구 200명 파업농성</p>	<p>1987. 4.24. 의성협의회 창립 1987. 9.29. 쌀 생산비 보장 및 농협 민주화 쟁취 상주대회(사벌, 100명) 1987. 9.30. 쌀 생산비 보장 및 농협 민주화 쟁취 의성대회(의성, 150명) 1987.10. 3. 쌀 생산비 보장 및 농협 민주화 쟁취 예천대회(풍양장터, 300명) 1987.10.17. 쌀 생산비 보장 및 농협 민주화 쟁취 다인대회(다인장터, 100명) 1987.11. 5~14. 교구 농민회장 배용진 야권후보 단일화 삭발 단식 농성 2.3 6월항쟁 이후</p>	<p>1987. 3.28. 에린회(대구여성의 전화 전신)창립(회장 이옥분) 1987. 6.29. 6월 항쟁 1987. 8.11. 우리문화연구회 '민족문화교실' 개최(가톨릭문화회관) 1987. 9.26. 대구경북 교사협의회 준비위원회(YMCA 회관) 1987.10.19. 대구 평교사협의회 구성모임 1987.10.31. 대구경북 교사협의회 창립대회(봉덕성당) 회장 이재원 추대/우리교육 연구회 출범(경북대 사범대) 1987.11. 4. 대구경북민족문화회 결성</p>

<p>(민가협 주최) 등이 진행.</p> <p>1987. 6.21. 일요일인 이날 대구에서는 경북대에 서 시내 5개대연합으로 '2보 전진을 위한 대구 지역 학생시민 연합대동제' 개최</p> <p>1987. 6.22-25. 6월 22일 대구시내 5개대생의 '민주화실천주간 선포식 및 출정식'이후 가두시위가 전개. 밤 10시경에는 1만여 명의 시위대열을 형성, 대구백화점 앞에서 시위.</p> <p>1987. 6.23. 대구시내 4개대생 1천여 명이 교내집회를 마치고 가두로 진출</p> <p>1987. 6.26. 국민운동본부가 공식 주도한 6·26평화대행진 대구에서 4만여 명이 참가. 포함 5백명. 대구에서는 YMCA앞에서 가두시위가 전개.</p> <p>1987. 8. 1~31.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시·군지부 결성(안동시·군, 봉화, 영덕, 청송, 영양, 점촌시, 문경군)</p> <p>1987.11.24. 민주대학 대구경북지부(이종섭, 서희열, 최도환) '군사정권 종식 위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발표</p>	<p>1987. 8.11. 포항 강원산업 11일간 파업 및 가두시위/현화산업 임금 16%인상, 월 2일 휴무 요구하며 30여명 파업농성/평화클러치 어용노조 퇴진, 임금인상 요구, 200여명 파업농성</p> <p>1987. 8.11. 매일유업 임금인상 요구, 150여명 농성</p> <p>1987. 8.12. 금복주, 임금인상 요구, 250명 농성. 9월 4일 노조결성</p> <p>1987. 8.12. 동국화섬(비산) 임금 40%인상 상여금 600% 요구 40여명 농성 시작/금성염직 임금 40%인상, 상여금 400% 요구 90여명 파업농성. 임금10% 타결(13일)/ 평화화섬 노동자 70여명 농성, 평화클러치 파업지지 농성/광성섬직 노동자 체불임금 청산요구/ 영남주물 임금인상 요구 150여명 파업농성/ 삼익공업사 임금인상 요구 110명 철야농성/ 경창산업 임금인상 요구 쟁의발생/ 광성산업 임금 20%인상 요구, 40여명 농성/ 남천경금속 임금 20%인상 요구, 350명 파업농성</p> <p>1987. 8.13. 신라섬유 임금 30% 인상 요구 500여명 파업농성/ 동양염공 임금 20%인상 요구 120여명 농성/ 성광화섬 노조결성 후 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 전면 타결</p> <p>1987. 8.14. 경산코오롱 노조인정 임금인상, 인사규정 수정 요구, 파업농성/ 동국무역(이현) 임금인상 요구 새벽 4시 60여명 농성투쟁/ 동현산업사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 쟁의/ 안성염직 임금 20%인상 요구 쟁의/ (주)태평 노동조합 조직 분규발생 신집행부 결성/ 동양주물 임금인상 요구 쟁의발생/ 금용기계 임금 25%인상 요구 오전8시 파업 오후 해체(5%타결)/ 범양식품 급여보장, 상여금 인상 등 요구, 150여명 철야농성/ 무림제지 노조인정, 임금인상 요구, 노조결성보고대회 후 정문을 차단하고 200여명/ 철야농성, 가두진출 시도, 구사대와 충돌.</p>	
--	--	--

	<p>안기부 노조간부연행/이조유리·영남유유·대구탁주합동 임금인상 요구 쟁의</p> <p>1987. 8.15. 성안염직 임금 30%인상 등 요구 100여명 회사정문 차단 후 파업돌입/ 동국직물 임금 30%인상 등 요구 130여명 파업농성/ 대동가공 임금 인상 요구 쟁의/ 오대금속 임금 30%인상 휴일보장 등 요구, 100여명 농성, 가족까지 합세하며 500여명이 만평로터리까지 가두시위</p> <p>1987. 8.17. 청신산업 임금 40% 인상 요구(10%타결), 플래카드 내걸고 농성/ 성안섬유 임금인상요구 350여명 식당에서 파업농성, 노동자대표 선출/ 수복섬유 임금 25%인상 요구, 200여명 파업농성 돌입/ 장미직물 임금인상 요구, 230여명 전체 노동자 농성/ 동영염직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하며 160명 노동자 전원 파업농성 돌입/ 한성섬유 임금 인상 요구 쟁의/ 대하염공 임금 30% 인상 요구 쟁의/ 동산섬유(성서) 임금 50% 인상 요구, 70여명 노동자 파업농성/ 동산섬유(3공단)와 광산섬유 노동자 요구 조건 단일화(근로시간 단축 등 8개항)합의 후 공동파업/ 대건기계제작소 임금 30%인상 등 요구, 쟁의 발생/ 형제기계공업사 임금인상 요구, 쟁의발생/ 현대금속 임금인상, 강제산업 철폐 요구, 회사정문차단 농성/ 삼립산업 임금인상, 어용노조퇴진 등 요구 농성. 노조불신임안 결의, 새집행부구성/ 충무공업사 쟁의발생/ 우진유리 임금인상, 노동자구타 항의 쟁의 "폭력상무 물러가라"/ 오리온제과 어용노조퇴진, 임금인상 요구, 250여명 농성</p> <p>1987. 8.18. 성화화성 임금 인상 요구 600여명 파업농성 돌입/ 범상공 제1공장(침산동) 임금 인상 요구, 90여명 농성/ 태방산업 임금 30% 인상 요구 240명 전원 파업농성/ 금강직포 임금 인상 요구, 파업농성/ 삼익공업사 임금인상, 노조결</p>	
--	--	--

		<p>성 보장 요구, 200여명 파업농성/ 삼성공업사 임금인상 요구, 1천여 명 농성/ 삼성광학 임금인상, 어용노조퇴진 요구, 농성. 삼성공업사 노동자와 합세 1500여명 공동투쟁/ 대영공업사 임금인상 요구, 40여명 파업농성/ 대구중공업 임금인상 요구, 100여명 파업농성/ 수성고량주 임금인상 요구, 60여명 작업거부 농성/ 경산제지 임금인상, 부식개선 등 요구, 50여명 농성/ 경북인쇄소 노조인정 임금인상 요구, 파업농성/ 한일버스주식회사 운전사, 안내양, 매표원 등 임금인상 요구, 200여명 파업농성</p> <p>1987. 8.19. 대한방직 2공장(월배) 임금 30%인상 요구, 철야농성/ 새한공업 쟁의발생/ 삼일염직쟁의발생/ 동원염직 임금인상 요구 농성/ 반야산업사 체불임금 청산요구, 60여명 외환은행 덕산동 지점 점거농성/ 신아금속 임금인상, 어용노조 퇴진 요구, 파업농성/ 대구기공사 임금인상 요구, 쟁의/ 대원기계공업, 신창기업, 태성산업 임금인상 요구, 쟁의</p> <p>1987. 8.20. 삼진섬유 임금인상, 노조결성 보장 요구 200여명 파업농성/ 우진실업 임금인상 요구 100명 전원 파업농성/ 신성섬유공업 임금인상 요구 405명 전원 파업농성/ 삼양광학, 대전실업 신천출장소 임금인상 요구 쟁의/ 삼혁주조 임금인상 요구, 쟁의/ 청송기계공업 노조인정, 임금인상 요구, 170여명 철야농성. 안기부 노조간부연행/ 서부기계제작소 임금인상 요구, 100여명 파업농성/ 삼전공업사, 보국전기, 삼성제철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 쟁의/ 대중사 우스밴드 임금인상 요구, 쟁의/ 한국경전기 노조간부 폭행 등 노조탄압 중단 요구, 40여명 회사정문 앞에서 시위/ 경희강계 노조결성 보장, 임금인상 요구, 80여명 파업농성/ 삼덕금속 임금인상 요구, 90여명 파업농성/ 태평양광학 진</p>	
--	--	---	--

		<p>정서 서명으로 노동자 1명 해고/ 영남계전 임금인상 요구, 60여명 파업농성/ 영남택시 LPG인하분 반영 요구, 30여명 운행거부 파업/ 중앙음약방송 임금인상, 의료보험 적용 요구, 쟁의</p> <p>1987. 8.21. 우양화섬 임금인상 요구 50여명 파업농성/ 미광섬유 임금인상 요구 30여명 파업농성/ 영도섬유 임금인상 요구, 파업농성/ 대한방직 1공장(북구 칠성동) 임금인상 요구, 전체 파업농성, 300명씩 교대로 농성/ 조일연공 임금인상 요구, 쟁의발생/ 협립제작소 임금인상 요구, 120명 파업농성/ 제계소 근로자 연합(80여개업체) 150여명 임금인상 요구하며 두류공원에서 시위/ 대구계몽사 임금인상 요구, 쟁의</p> <p>1987. 8.22. 태영직물 임금인상, 노조선택 보장 요구, 70여명 농성/ 상신직물 임금인상 요구, 50여명 파업농성/ 신성공업 임금인상 등 요구, 전원 파업 "임금착취는 야비하다, 무기휴업은 더야비하다" 한영산업 임금인상 요구, 200여명 파업/ 경북콘크리트 임금인상 요구, 50여명 파업정경유압공업사 임금 30%인상 요구 쟁의</p> <p>1987. 8.23. 삼호기계 임금인상 요구, 쟁의/ 신삼익 임금 40%인상 요구 쟁의/ 금육운수, 대흥운수 임금인상, 어용노조퇴진 요구, 80여명 운행거부 농성</p> <p>1987. 8.24. 한독섬유 임금 30% 인상 요구, 쟁의/ 광진전자 임금 50% 인상 요구 쟁의/ 고분당인쇄소 노조결성후 임금인상 요구, 90여명 철야농성/ 대구시내 법인택시 105개 회사 4,171대 전면파업, LPG인하분 반영, 사납금 인하 등 요구, 25일 3천여명 가두진출, "연행운전자 석방" 시정앞 시위전개, 29일 어용 조합장들에 의해 일방적 타결</p> <p>1987. 8.25. 아세아종합기계 임금인상 요구 쟁의/ 가야기독병원 간호원, 의료기사 50여명 임금</p>	
--	--	--	--

	인상 등 요구, 구내식당에서 농성 1987. 8.26. 선학알미농 임금 20%인상 요구 쟁의/ 학문사·한일건재공업·우림공업사·화랑고 무·범양식품·삼광제지·(주)삼원 임금인상 쟁의/한영교통 노조위원장 퇴진, 유급휴일 확 대 등 요구, 쟁의/광남버스·우일교통 쟁의발 생/롯데칠성음료판매사원 1백여명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요구, 두류공원에서 농성/동 운 동대구 소화물취급소·동대구호텔·세강 병원 등 임금인상 요구 쟁의 1987. 8.27. 창성염공 임금인상 요구, 쟁의/남선 물산(노원) 임금인상 쟁의/우일, 경산 영남방 직, 태일염직, 선미염공, 한진교역, 한성직물 등 임금인상 요구, 쟁의/일월공업사·반도공학· 한라산업·동명공업사·세명기업·세원 임 금인상 쟁의/대립택시 임금인상 요구, 쟁의/ 경산택시 임금인상 등 요구, 쟁의발생 1987. 8. 28. 대한교통 임금30%인상, 노조위원장 퇴진 요구, 쟁의/세한여객·현대교통·경북 교통·대덕버스 등 임금인상 쟁의/한우택시 근속수당, 장학금 지급 외 15개항 요구, 쟁의 1987. 9. 원림상사, 세동산업 임금인상 요구, 쟁의/ 상신브레이크 임금30%인상 등 요구, 쟁의/성 안공업사 임금인상 요구 쟁의/대성금속공업 노조결성, 임금인상 요구 투쟁. 1명 구속			
1988	1988. 2. 23~26 대대협(대구 경북지역 대학생 대 표자 협의회)주최로 "학살원흉 노태우 부정집 권 분쇄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시민 쟁의 대회" 개최. 1988. 5. 6. 민주당자원봉사요원 이광호(21) 분신 사건(칠곡군 왜관읍) 1988. 9. 2. [전국 민족민주운동협의회 추진위원 회] 결성에 맞추어 [대구경북 민주운동협의회 준비위]를 결성. 참가 단체는 대구노동자협의	1988. 3. 임금투쟁전진대회, (배성호의 사례발표), 임투지원 연대 투쟁으로 민주노조건설->한국 LBI(권영숙), 태양어페럴, 오대금속(정우달, 배성호) 등 참여 1988. 신규노조결성투쟁: 경대병원노조, 경대교 직원노조(기성희중심), 건축설계노조, 파티마 병원노조, 지역건축설계노조, 지역인쇄노조, 매일신문, 지역복욕업 노조 등. 1988. 노조민주화 투쟁: 동원금속, 남선금속.	1988. 4.22. 미국 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전국 농민 대회 회원 참여(전국대학교) 1988. 4.26. 상주협위회 발족 1988. 5.26. 미국 농산물 수입 반대 전국 농민 결의 대회 회원 참여(여의도) 1988. 8.19. 영양 고추 재값 받기 운동 1988. 8.23. 풍양 농민대회(100명) 1988. 9. 4. 영양 2차 농민대회(2,000명, 12명 연행, 2명 구속)	1988. 1.23. 대구여성회 창립총회, 기관지 '대구여 성' 창간 1988. 2. 6. 대구교협과 경북교협 분리(받아성당) 1988. 8. 대구여성회, 영남대학교 여직원 조기정 년 철폐투쟁지원 1988. 9. 2. 대구시평교사회 연합회 결성(중구 반 월당 할매칼국수 2층) 1988.10.30. 민주교육법 제취 결의대회 겸 대구 경북 교사협의회 창립 1주년 집회

	회, 대구가톨릭농민회, 경북기독교농민회 등 11개 단체. 강령·규약소위, 정책·기획소위, 조직소위 등 3개 소위원회설치. 1988. 9.22. 통일민주당대경지부, 국정감사부활 계기로 권력형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1988.10.26. 대구지역 학생 10여 명 대구지방검찰 청을 점거하여 전두환·이순자 구속 요구 시위. 1988.10.27. 대구지역 대학생 4백여 명 계명대 노 천강당에서 [광주학살, 5공비리 관련자 처벌을 위한 대구지역 투쟁연합 선포식] 개최. 1988.11. 3. 대구지역 대학생 광주학살, 5공비리 관련자 처벌 요구 가두시위 전개 1988.11. 5. 대구지역 대학생 광주학살, 5공비리 관련자 처벌 요구 가두시위 전개 1988.11.11. [전·이구속촉구 대구지역 결사대] 소속 대학생 6명 전두환 생가에 화염병 투척 시위. 1988.11.14. 시민·학생 3천 여명이 모여 대구백 화점에서 [19일 총궐기를 위한 대구시민학생 한마당] 개최. 야간 해불 시위 전개. 한일극 장~미도백화점~중앙로~명덕로타리~서문 시장~대구대. 1988.11.19. 대구백화점 앞에 6천여 명이 집결하 여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및 시내행진. 1988.11.26. 대구백화점 앞에서 시민결기대회 후 평화행진. 1988.11.26. 통일민주당 대구지부, 성명서 발표, 노태우대통령의 시국수습방안 관련	상신브레이크, 한일염공, 대한방직, 아주, 성안 섬유 등 1988. 6. 여성조기정년실태조사 실시. 영남대 여 직원 조기정년 철폐투쟁지원. 1988. 8.15. 대구노동자협의회건설->지역노동운 동의 공동투쟁과 통일단결운동의 성과. 전국 노동운동단체협의회 참여, 대구경북민족민주 운동연합 결성에 참여. 1988. 8.16. 포항제철내 포철공고 출신 노동자 40 여명 민주노조 결성시도. <민족포철>지 발간 1988.10.28. 유성모직 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 며 작업거부투쟁 1988.11. 9. 오대금속 노동자 작업거부 투쟁 (노동 자 집단폭행) 1988.11. 오대금속 노조탄압분쇄 3공단 대책위 (한국 LBI, 태양어페럴, 아신, 동원 등 참여) 공 동대응 1988.11.26. 제철정비 등 6개 노조를 중심으로 '포 항제철협력업체노조연합' 결성 1988.12. 7. 대구경북노동조합연합준비위원회(준 비위원장, 양계복 대동공업노조위원장. 30개 노조 참여) 1988.12.27. 동국화섬노동자 단체협약 결렬에 따 라 가두시위 전개 1988.12.31. 파티마 병원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 입.	1988. 9. 9. 영양 3차 농민대회(3,000명) 1988. 9.12. 봉화 1차 농민대회(1,000명) 1988. 9.13. 청송 농민대회(700명) 1988. 9.14. 청송 농민대회(500명) 1988. 9.16. 청송 농민대회(300명), 의성 농민대회 (700명) 1988. 9.17. 봉화 2차 농민대회(1,000명) 1988. 9.19. 청송 농민대회(1,500명) 1988. 9.20. 청송 농민대회(300명), 봉화 재산면 대회(100명) 1988. 9.22. 안동 길안 농민대회(300명) 1988. 9.23. 명호 농민대회(300명) 1988. 9.28. 안동, 예천 농민 대회(풍산, 800명) 1988.10. 2. 봉화 3차 농민대회(500명, 철도 점거 18명 연행, 4명 구속). 안동 농민대회(5,000명) 1988.10. 3. 봉화 구속자 석방 촉구대회(100명) 1988.10. 6. 의성 농민 대회(1,500명). 1988.10. 8. 상주 사벌 농민대회(100명) 1988.10.12. 예천 농민대회(500명). 경북 농민대 회(2,000명) 1988.11. 7. 소천면 대회 50여 명 수배 요구 1988.11. 8. 영덕군 지품면 한풀이 마당100여명 1988.11.12. 안동 3차 농민대회(500명) 1988.11.14. 영양 고추 전량 수매 촉구 및 현물 상환 결의대회(500명) 1988.11.17. 봉화 현물 상환 결의대회(200명). 1988.11.25. 상주 현물 상환 결의대회. 의성, 다인, 옥산, 단촌 등 8개면에서 현물상환 1988.12. 8. 예천군 풍양에서 현물 상환 1988.12. 9. 봉화군 농민회 서울 민정당 중앙당사 앞 현물 적제 및 농성(200명) 1988.12.15. 서울 농협중앙회 농성(청송 부남면) 김대중 집 앞 농성(청송군 안덕면 농민) 청송 군(현서, 안덕, 진보, 파천)에서 현물 상환 투쟁	1988.11.26.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창립발기인 대회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1988.12.15. 봉산탈춤연구회 흥터 창립 1988.12.21. 대구여성회, 대한1동 파출소 내 여성 운간사건(강정순씨 사건) 접수, 투쟁 1988.12. 함께하는 주부모임 결성(회장 정경숙)
--	--	---	--	---

1989	1989. 6.15. 통일민주당 대구경북지부, 성명서 발표(전국교직원노조 관련)	1989. 1.10. 진안섬유 노동자 근로자 2명 부당해고에 항의 노동청 농성투쟁 1989. 1.16. 지역 16개 노조를 중심으로 '포항지역 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 조직 1989. 2. 2. 대하통상 노동자 임금협상 결렬로 철야농성 1989. 2. 대구노동청 점거농성(대하염공, 삼공전자, 대하통상) 강제진압과정에서 7명의 구속자 발생. 1989. 2. 단위노조 위원장 노동청 단식농성과 구속자석방 촉구 대회. 1989. 3. 6. 동양어패럴 임금협상 결렬, 전면파업 1989. 3.13. 동산베어링 노조위원장 구속 항의 철야농성 1989. 3.14. 남선물산 쟁의발생, 직장폐쇄 철회, 임금인상 요구 66일간 파업투쟁 1989. 3. 염색공단 임금인상공대위 투쟁(남선, 대화, 대화 염색공단) 1989. 4.24. 남선경금속 노조원 1천여명 파업돌입. 6월 19일 구사대와 충돌. 농공공장 지부장 조기현 분신자살 기도. 1989. 동원산업노조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공대위 등 업종별 공동투쟁 모색. 1989. 남영섬유노조, 무노동무임금 철폐와 위장파업 철회 민주노조사수 투쟁. 1989. 전국교직원 노조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 지역의 제 민주세력과의 공안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수호를 위해 연대투쟁 결의. 1989.12. 대구경북민중대회 개최. 1989.10.12. 대동공업 노조 임금협상 결렬 파업투쟁 1989. 11. 08. 대구지역 노동조합연합 건설	1989. 2.13. 서울 여의도 집회 참석(2,000명) 1989. 3. 1. 경북 농민운동연합 결성 1989. 4. 6. 전국 농민운동연합 결성	1989. 1.17. 대구교협, 광주교협 '만남의 밤' 행사 중 이재원 회장 뇌졸중으로 쓰러짐 1989. 2. 대구교사협의회 2대회장 최연호 선출(계명대 시정각실) 1989. 3.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구경북단위지회 출범 1989. 3. 풍물굿패 일주패 창단 → 위치바뀜 1989. 3.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효성여대 여성학 강좌 개설 1989. 4. 3 대구여성회, 강정순씨 사건관련 법원 앞 피켓시위 1989. 4. 애린회, 상담자원 봉사자를 위한 제1기 상담교실 실시 1989. 5. 26. 대경민교협 전교조지지 성명서 표명 1989. 5. 함께하는 주부모임, 제1기 공해 추방을 위한 주부강좌 실시 1989. 7. 새벗도서관 개관 1989. 7.31. 평양 세계학생축전에 작품을 보냈다는 이유로 정하수 구속
1990	1990. 2. 25. 경북대 등 대구지역 대학생과 재야인사 등 1천여명이 "3당 합당 규탄대회"를 가짐.	1990. 1.2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 1990. 4. 3. 보권선거 노동자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1990. 4.25. 전국 농민회 총연맹 결성 1990.12.19. 생명의 공동체 창립총회(안동 문화회)	1990. 2. 강정순씨 사건 함소심 선고공판 무죄판결 1990. 4. 계명대학교, 국내 최초로 여성학대학원

	1990. 7. 2. 민주당 대구경북지부 농촌실태조사 및 인권실태조사(14일까지) 1990. 11. 28. 민주당 대구경북지부 농민문제 토론좌담회 개최, 서현빌딩	성과 선거참여 1990. 5. 1. 5·1절 전국총파업, 태화염직 임금협상 결렬, 파업 1990. 5. 9. 총궐기투쟁(민자당 창당일) 1990. 5.11. 영풍제관 노조원 150여명 임금인상 요구, 집단 연월차 휴가 투쟁/ 구미 새한전자 파업 1990. 5.19. 강원산업 포항공장 임금협상 결렬 파업투쟁 1990. 5.21. 남선물산 임금협상 결렬 파업돌입. 60일간 굴뚝농성투쟁. 1990. 5.29. 동산베어링 노조 해산신고 1990. 6.27. 포항 (주)삼일 임금인상요구 파업 1990. 7. 4. 남선물산, 태화염공, 대우기전 3사 공동파업; 공권력 투입에 맞서 민주노조사수결 사항전, 전노협 사수투쟁의 선봉. 남선물산 굴뚝농성투쟁 1990. 8. 5. 한전산업 노동자집단 폭행에 항의 전면파업.	관)	신설 1990. 4.16. 폐놀오염 수돗물 사건발생, 대구여성계 항의활동 1990. 4.28. 교직원노조추진위원회 결성(대명동 가톨릭 문화관 강당) 1990. 5.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경북 발기인대회(경북대 야외공연장) 1990. 6. 8.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 전교조 결성 지지 성명서 1990. 6.10. 전교조 공립학교 분회장 직위해제 1990. 6.11. 전교조 대구지부 창립(경북대 야외공연장) 1990. 6.13. 이도길 국공립교사협의회창 구축 1990. 6.19. 협성재단 안출호 해임사건 1990. 6.28. 예술마당 솔 건립추진위 주체 작품전(백향화랑) 1990. 7. 1. 전교조 합법성 쟁취결의대회(계명대) 1990.10.18. 예술마당 솔, 민국협, 전국민족극한마당 개최 1990.10.19. 예술마당 솔 정식 창립 1990.11. 전교조 탄압저지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990.12. 극단 함께 사는 세상 창단
1991	1991. 3. 8. 영남대 전북대 경성대 안동대 등 1천여명의 학생이 "수서비리 주범 노태우 정권퇴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짐. 1991. 3. 3. 수서비리척결 시민결의대회(계명대, 20명) 1991. 3. 11. 수서비리진상규명 촉구 대구시민대회 개최. 1991. 3.17. 수서비리척결 범국민2차대회(대구 30명, 안동 20명) 1991. 3. 23. 대구시 수돗물사태(폐놀오염관련) 시민규탄대회개최 및 수돗물피해접수 공동창	1991. 동산의료원, 파티마병원, 지역 택시파업 등 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중심에서서 직권중재라는 노동법에 맞서 총파업 투쟁. 1991. 노동법 개정 공대위 결성(24개 노조 결합) 1991. 대구노동운동단체협의회 결성.	1991. 3.23. 전국농민대회(국의법 쟁취 및 쌀전량 수매를 위한 대회 - 경북 150명) 1991. 3.26. 기초의회 선거투쟁 1991. 4. 4. 상주 사벌, 공검 재적재 투쟁 1991. 4.10. 골프장지원공대위 기자회견 1991. 4.11. 의보조합 동시다발 항의방문(경산, 금릉 등) 1991. 4.12. 의보조합 민자당 항의방문(안동) 1991. 4.13. 선산 산동 골프장 가두홍보(대구 50명); 청송군 의보간담회(50명) 1991. 4.14. 국의법 쟁취대회(서울 장충단 4명)	1991. 1.11. 전교조 위원장 이만호 검거(부산) 1991. 3. 폐놀사태 관련 수돗물 오염 범시민대책위 구성 및 규탄대회 1991. 8. 애린회, 회지 습터 창간 1991.10. 대구경북 민족미술인협의회 결성

<p>구 개설.</p> <p>1991. 4. 20 "노정권 퇴진 국민대회"</p> <p>1991. 5. 3 경북대 안동대 등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5천여 명이 "강경대·김영균열사 추모 및 노정권 규탄대회"를 가짐.</p> <p>1991. 5. 16 "광주항쟁 계승과 폭력살인 민생과란 노태우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p> <p>1991. 6. 울진, 후포 청년회주체 "울진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 군민대회" 개최.</p> <p>1991. 8. 17 울진 군청에 3천명이 모여 "울진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반대 결사투쟁" 집회.</p> <p>1991. 8. 18. 대구대생 손석용씨 분신 투신 사망 사건</p> <p>1991. 10. 7. 울진원전 반대집회(300명)</p> <p>1991. 12. 28~ 울진 영일 핵폐기장반대투쟁(연인원 각 30,000명)</p>			<p>1991. 4. 26. 국회 앞 국의법 쟁취 전농선봉대투쟁 (경북 2명)</p> <p>1991. 4. 28. 산동 골프장저지와 농활보고대회(산동 200명)</p> <p>1991. 5. 1. 노동절 기념 및 강경대 열사 살인 규탄대회(안동, 대구)</p> <p>1991. 5. 2. 안동의보 공청회(50명)</p> <p>1991. 5. 4. 백골단 해체의 날(안동, 대구)</p> <p>1991. 5. 7. 예천민협 결의대회(강경대, 김영균 열사 규탄관련 70명)</p> <p>1991. 5. 9. 민자당 해체 및 공안통치분쇄 제2차 국민대회(안동, 상주, 대구)</p> <p>1991. 5. 14. 고 강경대 열사 추모제 및 폭력살인 규탄대회</p> <p>1991. 5. 15. 김영균 열사 장례식(농민 200명)</p> <p>1991. 5. 18. 농민말살 살인폭력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한 경산 농민대회(200명)</p> <p>1991. 5. 25. 농민말살 살인폭력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한 국민대회(안동, 금릉)</p>	
			<p>1991. 6. 2. 전국노동자·학생 결의대회(부산 5명)</p> <p>1991. 6. 6. 마늘투쟁 대표자 회의(전농)</p> <p>1991. 6. 9. 공안통치분쇄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3차 국민대회(대구 70명)</p> <p>1991. 6. 10. 안동 국민대회; 의정 다인성당 시국기도회</p> <p>1991. 6. 13. 산업폐기물처리장반대 성주 벽진면민 결의대회(20명)</p> <p>1991. 6. 24. 6전 일선대표자 결의대회(서울 20명)</p> <p>1991. 7. 8. 수입개방반대 및 골프장저지 농·학 결의대회(신산 1,000명 중 농민 200명)</p> <p>1991. 7. 10. 농·학 전진대회(경산, 봉화, 안동 등)</p> <p>1991. 7. 28. 한반도 비핵지대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등반대회(팔공산)</p> <p>1991. 8. 14. 골프장지원공대위 성명 발표</p>	

			<p>1991. 9. 26. 전농 쌀 공청회(경북 10명 참석)</p> <p>1991. 9. 28. 민중탄압분쇄 총기살인 규탄대회(성주, 고령)</p> <p>1991. 10. 14. 성주경찰 농민총기살인미수대책위(성주, 고령)</p> <p>1991. 11. 11. 의성군 농민대회(안계 300명)</p> <p>1991. 11. 14. 경산군 농민대회(하양 300명); 안동 풍천 쌀투쟁 설명회(구담 150명)</p> <p>1991. 11. 17. 경북농민대회(상주 1,200명)</p> <p>1991. 11. 26. 전국농민대회(서울 장충단 농민대회 20,000명, 경북 800명)</p> <p>1991. 12. 1. 전국연합 결성대회(연세대, 건국대)</p> <p>1991. 12. 7. 봉화군 농민대회(300명)</p> <p>1991. 12. 8. 대구·경북연합 결성대회</p> <p>1991. 12. 8~14. 추곡수매날치기통과 항의농성투쟁(경산, 안동 등)</p> <p>1991. 12. 16~18. 추곡수매날치기통과 감시단 대국회투쟁(서울 20명)</p>	
<p>1992</p>	<p>1992. 1. 5. 부시 망한 반대투쟁(서울 10명)</p> <p>1992. 3. 21. 금권선거 규탄, 민자당 심판 및 총선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계명대)</p> <p>1992. 3. 31. 핵폐기장건설반대 결의대회(울진)</p> <p>1992. 4. 15. 수성갑 선거투쟁 보고대회(계명대)</p> <p>1992. 4. 18.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연합은 1천여 명이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4·19집"을 가짐.</p>	<p>1992. 6. 3. 대동공업노조, 태업과 부분파업에 돌입. 3일부터 11일까지 오후 2시간씩 부분파업.</p> <p>1992. 6. 12. 대동공업 직장폐쇄.</p> <p>1992. 6. 23. 대노련의장 등 제3차 개입 혐의로 노조 간부 잇달아 검거. 대동공업 노조원 전날에 이어 정문에서 회사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정문과 사무실 등을 완전히 점거. 사내에서 격렬한 시위.</p> <p>1992. 6. 26.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아폴로산업, 26일 오후 4시 전면파업.</p> <p>1992. 6. 28. 대동공업 파업 18일째 경찰 투입. 점거 농성 노조원 1백10명 연행.</p> <p>1992. 6. 29. 3개월치 임금 기한 내 지급안한 임금체불 기업대표(보성기업) 첫 구속.</p> <p>1992. 6. 30. 대동공업 노조 간부 등 5명 구속.</p> <p>1992. 7. 1. 대동공업 노조원 출근 거부, '경찰 투입'</p>	<p>1992. 1. 21. 쌀추가수매 요구를 위한 나라상경투쟁(명동성당 5명, 25가마)</p> <p>1992. 4. 17. 영농발대식(의성, 안동, 성주)</p> <p>1992. 4. 28. 핵폐기장건설반대 집회(울진)</p> <p>1992. 5. 2. 상주 영농발대식</p> <p>1992. 5. 18. 전국 양파생산자 모임(대전: 금릉, 의성, 도연맹 참석)</p> <p>1992. 5. 19. 민자당 심판 및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시·도민 결의대회(경북대: 의성, 경산, 청송, 여성농민회 등 70여명 참석)</p> <p>1992. 5. 23. 전국 양파 대책위원회 구성(대전: 금릉, 의성, 도연맹 참석)</p> <p>1992. 6. 2. 전국 양파생산자 모임 기자회견(서울); 통합공과금 반대집회(영주: 시민 등 600여명 참석)</p> <p>1992. 6. 17. 의보차압 저지를 위한 항의농성(상주</p>	<p>1992. 2. 성폭력 대책 대구시민단체 협의회 결성</p> <p>1992. 3. 대구여성의 전화, 매 맞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 개설</p> <p>1992. 5. 1. 대구경북 민미협, "현실과 미술" 창간호 발행</p> <p>1992. 5. 지방사회연구원, 대구사회연구소로 전환</p> <p>1992. 6. 소리타래 첫 앨범(일어서는 작은 정부) 출시</p> <p>1992. 9. 26. 대구여성회, 대구 첫 여성주간행사</p> <p>1992. 11. 애린회, 대구여성의 전화로 개칭</p>

		<p>항의 지속. 대동공업 노조원 2백여 명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달성경찰서 앞에서 농성.</p> <p>1992. 7. 2. 경주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경신공업이 임금협상 결렬로 전면파업에 돌입. 대동공업 노조원 400여명은 회사에 출근하여, 노조 사무실 입구에 모여 작업을 거부하며 1시간 동안 농성.</p> <p>1992. 7.22. 대우기전, 분규타결.</p> <p>1992. 9. 2. 대동공업, 3개항에 합의하고 완전 정상화.</p> <p>1992. 9.30. 대구택시노조, 지산동 운수연수원에 서 '92 임금협상 촉구 결의 대회'가짐.</p> <p>1992.10. 6. 대구문화방송노조, 6일 오전 9시부터 부분 제작거부 결의.</p> <p>1992.10. 7. 대구문화방송, 노조집행부 등 14명 서울MBC 경찰투입과 노조간부 구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철야농성.</p> <p>1992.10.15. 영남대, 교육부 인사지침에 따라 여성 사무보조원 등 고용직 직원을 기능직으로 바꾸면서 상당수직원의 탈락이 예상되는 특별시험을 지르도록 해 여직원들이 시험거부 및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등 항의.</p> <p>1992.12.11. 대구파티마병원, 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노조원 4명을 같은 징계사유로 또다시 해고 또는 정직 처분한 데 항의해 노조간부 10여명 밤샘농성.</p> <p>1992.12.31. 대한중석 영월 상동광업소 노조원 130여명, 27일 회사가 조업중단을 결정하자 경북 달성 본사로 물러가 생존권 보상을 요구하며 사장실에 들어가 항의 농성</p>	<p>40여명)</p> <p>1992. 6.22. 경북지역 양과생산자 모임(도연맹 : 금릉, 의성)</p> <p>1992. 7. 7~8.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농민·학생 결의대회'(금릉, 안동, 의성 등 농활지역)</p> <p>1992. 7.23. 전국 투쟁기획회의(대전)</p> <p>1992. 7.23~25.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농성 - 민주당 지도부(3명 참여)</p> <p>1992. 7.26.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대구교도소 방문투쟁(5명)</p> <p>1992. 8.14. 후계자 부당선정 항의농성(봉화 20여명)</p> <p>1992. 8.14~15. 범민족대회(서울대 : 금릉, 청송 5명 참석)</p> <p>1992. 9. 3. 덴켈 가트 사무총장 방한에 따른 상경투쟁(금릉 등 7명)</p> <p>1992.10. 2. '농가부채탕감 및 쌀값보장전람수에 쟁취'를 위한 경북농민대회(의성 1,000여명)</p> <p>1992.10.23~25. 농협통합반대 항의농성(상주군 모동면 20여명)</p> <p>1992.11. 8~12. 군 동시다발 집회 및 선전주간</p> <p>1992.11. 9. 면지회장 이상 간부활동가 상경투쟁 (성주, 경산 등 40여명; 영덕군 농민대회(100여명)</p> <p>1992.11. 2. 안동군 농민대회(100여명);김영삼 방문에 따른 침묵시위(상주 40여명)</p> <p>1992.11.30. 공정선거 감시단 결성식(경산)</p> <p>1992.12. 1. 선산군 고아면 나락 야적(600여 가마)</p> <p>1992.12. 3. 상주군 나락 야적(200여 가마); 성주군 공감단 결성식</p> <p>1992.12. 6. 영양군 공감단 결성</p> <p>1992.12. 9. 의성군 공감단 결성</p> <p>1992.12.18. 대통령 선거</p>	
1993	1993. 5.16 "5·18 진상규명" 시위.	1993. 1. 4. 대한중석 노사, 4차 협상에서 극적인	1993. 2.15. 쌀수입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동	1993. 1. 문예미학회 비공식 첫모임

1993.12.11 수입개방반대와 공약 불이행 규탄 및 국민투표촉구를 위한 범시도민 제 1차 결기대회	<p>타결, 노사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공장 부분 계가동에 들어감</p> <p>1993. 1.26. 동양제과 대구지사 노조원 1백 30명은 자유로운 노조가입 허용, 봉급에서 노조비 전액 공제,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p> <p>1993. 2. 7. 대구(주) 아신, 밀린 임금 요구 6일째 농성.</p> <p>1993. 3.26. 포항의료원 노동조합, 병원 측의 부당 해고 철폐와 각종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항의하면 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p> <p>1993. 3.28. 대구지방노동청, 화랑산업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첫 구속.</p> <p>1993. 4. 3. 대구 남부지압 노동사무소, 종업원들의 임금과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로 (주) 대명 교통 대표와 삼보기계 대표를 구속.</p> <p>1993. 4. 3. 금속노련 대구. 경북본부 소속 근로자 1천 5백여 명, '93 입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 결의 대회를 개최.</p> <p>1993. 4. 8. 전노협 산하 대구지역 노동조합연합, '노총과 경총의 4.7%-8.9% 밀실홍정 합의한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특히 대구노련은 대동공업을 비롯한 대구지역 30여개 노조가 포함된 '93년 임금인상 공동투쟁본부' 구성</p> <p>1993. 4.15. 대구지역 노동조합연합 및 해고노동자 대표 10여명, 대구지방 노동청 준공식장에서 '해고자 복직',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면 연좌농성.</p> <p>1993. 4.16. 지난해 12월 부도가 난 이안무역(주) 해고근로자 80여명이 거래은행이 상업은행 평리동 지점에 물러가 체불임금과 퇴직금 2억 8천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3시간 동안 농성.</p> <p>1993. 4.20. 대구 현대자동차서비스 노조(북구 노원동), 파업에 돌입.</p>	<p>국대, 농민 1만 2천, 경북지역 500명 참가)</p> <p>1993. 3.22. 우리쌀치키기 범국민 대대위결성(한국노총)</p> <p>1993. 4.22. 의성군 농민회 영농발대식(마늘시장 300여명)</p> <p>1993. 4.26. 안동농민회 단합대회 및 영농발대식(평은유원지 100여명)</p> <p>1993. 4.29. 사과주스원액 수입저지를 위한 해태본사 상경투쟁(안동, 의성 등 70여명)</p> <p>1993. 5. 1. 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대구역 5명 참석)</p> <p>1993. 5.18. 광주항쟁계승 시·도민 결의대회(대구역, 경산 등 10여명)</p> <p>1993. 5.22. 대경총련 반미의 날 행사(경북대 3명)</p> <p>1993. 6.10. 6월항쟁계승 시·도민 대회(대구역 10여명)</p> <p>1993. 6.30. 하계농활 발대식(농활수행 전지역)</p> <p>1993. 7. 3~10. 신농정 전면수정 및 클린턴 방한 반대 의장단 단식농성(농협중앙회)</p> <p>1993. 7. 8. 각 군 농활 해단식</p> <p>1993. 7. 9. 클린턴 방한 반대집회(대구역 5명 참가)</p> <p>1993. 7.10. 신농정 전면수정 및 클린턴 방한저지 비상 전국농민대회(명동성당 : 영덕, 안동, 상주, 의성 등 150여명)</p> <p>1993. 7.11~18. 신농정 수정을 위한 농성(민주당 : 의성, 안동 등 결합)</p> <p>1993. 7.27. 대·경 범추본 결성식</p> <p>1993. 8.14~15. 범민족대회(한양대, 18명참가)</p> <p>1993. 9.19. 전국 통합의료쟁취 국민대회(장춘단 공원 : 안동 등 15명)</p> <p>1993.10.20. 병해피해 조사서 발송완료 및 조사시작</p> <p>1993.11. 5. 전국 잇따배생산자대회(조치원)</p>	<p>1993. 6. 새빛도서관 확장개관</p> <p>1993.11. 극단 가인 창단공연(합세덕 작, 감사와 폭제비와 여교원)</p> <p>1993.12. 성폭력범죄특별법 제정</p>
--	---	--	--

	<p>1993. 5. 6. 아폴로산업, 노조에 공권력 투입.</p> <p>1993. 5. 7. 아폴로산업, 근로자 1백여 명 철야농성. 또한 아폴로 산업 하청 50개 업체의 근로자 "아폴로산업 조합개개 촉구대회"를 열기 위해 집결.</p> <p>1993. 5.10. 아폴로 산업, 농성중인 노조원들과 심한 몸싸움. 힘에 밀려 정문을 물러선 노조원들은 오후 4시까지 회사정원에서 농성. 또한 인근 광진상공과 경진공업 측 노조원 2백여 명,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조농성을 벌이기도.</p> <p>1993. 5.11. 아폴로 산업, 노사양측은 3개항에 극적으로 합의. 또한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합의.</p> <p>1993. 5.14. 포항. 경주지역 해고자와 노동자 4백 50여명, "임금억제 분쇄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p> <p>1993. 6. 1. 전국노조대표자회의 출범.</p> <p>1993. 6.13. 대구 남선물산, 노동자 3명이 남선물산 정문에서 복직을 요구. 텐트 농성.</p> <p>1993. 6.14. 경주 아폴로 산업, 5개항이 미타결 되면서 주간조업 거부에 이어 야간조업도 거부.</p> <p>1993. 6.15. 경주 아폴로 산업, 파업파업에 돌입.</p> <p>1993. 6.21. 동협정밀 노조,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 회사측은 이에 맞서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p> <p>1993. 6.30. 구미 두산전자노조가 회사 측과 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전면파업에 돌입.</p> <p>1993. 7. 2. 대동공업,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부분 파업에 돌입.</p> <p>1993. 7.24. 대구기전, 회사측과 임·단협안이 협상결로 전면파업에 돌입.</p> <p>1993. 8. 4. 대구 대화운수노조,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가.</p> <p>1993. 8. 5. 대구기전, 김우중 대구그를 회장이 직접 협상에 개입해 노사협상안이 극적으로 타결.</p>	<p>1993.11.13. 수입개방저지를 위한 상경투쟁</p> <p>1993.11.17. 도 대회 관련 기자회견</p> <p>1993.11.19. 영덕군 농민대회(오일시장, 150여명)</p> <p>1993.11.20. 신농성 전면수정과 냉해보상을 위한 경북농민대회(김천, 700여명)</p> <p>1993.12. 1. 영덕군 병곡면 비적계투쟁(면사무소, 160여 가마)</p> <p>1993.12. 2. 안동 농민대회(신시장, 300여명)</p> <p>1993.12. 3~22. 안동농민회 냉해제조사 및 수입개방저지를 위한 농성</p> <p>1993.12. 4. 고령군 농민회 농기계반납투쟁(군청 등 10여대);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 개방저지 시·도민 결의대회(경산 등 30여명)</p> <p>1993.12. 6. 대구·경북지역 비상대책위원회 결성(36개 단체)</p> <p>1993.12. 7. 쌀수입반대 국민대회(서울역, 300여명)</p> <p>1993.12.10. 영주 영풍농민대회 및 농기계반납(원당천, 100여명); 청도군 금원면 차량시위(20여대)</p> <p>1993.12.11. 수입개방저지 대구·경북 시·도민 2차 결의대회(대구백화점 : 경산, 청도 등 30여명)</p> <p>1993.12.12. 봉화군 농민대회 및 농기계반납투쟁(시장, 300여명); 청송군 현서면 농기계반납투쟁</p> <p>1993.12.13. 경산군 농민대회 및 농기계반납투쟁(경산시장 300여명); 안동지역비상대책위 결성</p> <p>1993.12.14. 영양군 농민회 농기계반납투쟁(군청, 30여대); 영덕군 남정면 농기계·토지문서 반납투쟁</p> <p>1993.12.15. 청송군 차량시위 및 선전전(20여대)</p> <p>1993.12.17. 선산군 농민대회(시장, 150여명); 의</p>
--	---	---

	<p>1993. 8.12. 택시노조 대구지부, 대화운수노조원과 함께 '고 권택환 동지 순직 추도 및 대화운수이주환 사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한 대구 택시노동자 규탄 대회'를 열어.</p> <p>1993. 8.19.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조합원 300여명이 회사 현관 앞에서 농성.</p> <p>1993. 9. 8. '노동법 개정과 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노조대자회의, 대노련 등 지역노동단체와 27개 노조대표들은 '근로자과건법 저지와 노동법 개정촉구'를 위한 대구노동자 대책회의, 이에 앞서 대책회의는 7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p> <p>1993. 9.25. 전국택시노련대구지부, 1000여명의 기사들이 대구 신천고수부지에서 '1993 임금 및 단체협상 승리 촉구 결의대회'를 가져.</p> <p>1993. 10. 6. 경북일보사, 4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회사가 사원 84명을 무더기로 감원조치하자 사원들이 크게 반발해 집단 출근투쟁.</p> <p>1993.10.16. 노동법 개정과 노조탄압저지를 위한 대구노동자대책회의, 16일 오후 3시 대구백화점 앞에서 노동법 개정 및 근로자과건법 저지를 촉구하는 대시민 가두선전시위를 벌여.</p> <p>1993.11.22. 풍산 안강공장, 전국 구축, 수배, 해고 노동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전해투) 소속 해고 노동자들 20여명이 풍산 안강공장의 원직 복직을 위한 민담을 요구하다 집단폭행을 당해 15명이 중경상.</p> <p>1993.12.18. 경주지역 노조협의회, 2백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공단공원에서 발족식을 가져.</p>	<p>성군 농민대회(시장, 200여명); 상주군 농민대회 및 농기계반납투쟁(로터리, 300여명 농기계 2대 불태움)</p> <p>1993.12.18. 대구·경북지역 비상대책위원회 3차 시·도민 결의대회(대구백화점 : 경산, 청도 등 30여명)</p> <p>1993.12.19. 고령군 농민대회 및 선전전(국악당 후계자회 등 200여명)</p> <p>1993.12.20. 미문화원 진격투쟁(안동, 의성, 금릉 등 50여명)</p> <p>1993.12.22. 성주군 농민대회 및 농기계반납투쟁(우시장, 300여명)</p> <p>1993.12.23. 영주 영풍농민회 2차 농기계반납투쟁(시청, 3대)</p> <p>1993.12.24. 경산군농민회 차량시위(30여대); 성주, 영주, 안동지역 거리 선전전</p> <p>1993.12.29. 대구·경북 비상대책위원회 거리 선전전(대구백화점 일대)</p>	
1994.	<p>1994.1.17. 민주당대구시지부, '12·12군사반란자 기소유예'무효화 촉구 결의대회</p> <p>1994.12. 3 대구·경북지역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소속 학생 10여명이 노전대통령이 사는 팔공보성타운 앞에서 "12·12반란자 처벌 요구"를 위한 연좌시위를 벌임.</p>	<p>1994. 1. 4. 대구기전 노조, 지난해 말 성과급으로 1인당 86만여 원을 요구했으나, 회사사측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기로 해 철야농성에 들어가.</p> <p>1994. 1.12. 노동법 개정과 노조탄압저지를 위한 대구노동자대책회의, 동산병원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개방화, 국제화를</p>	<p>1994. 1. 2. 경산지역 비상대책위원회 결성</p> <p>1994. 1. 3. 노동자·농민대회 기획회의</p> <p>1994. 1. 4. 영주 영풍농민회 3차 농기계반납투쟁</p> <p>1994. 1.14. 노동자·농민대회 관련 기자회견</p> <p>1994. 1.15. 쌀수입저지를 위한 노동자·농민대회(대구백화점, 150명 참가)</p>
		<p>1994. 1.29. 민예총 대구지회 창립</p> <p>1994. 3.19. 3·8세계여성 날 기념 제1회 대구 경북여성대회 개최</p> <p>1994. 6.28. 문예미학회 '문예미학' 1호 발행</p> <p>1994. 7.-8. 문예미학 강좌(경북대 인문대)</p> <p>1994. 8. 노래모임 좋은 친구들 창립</p>	

<p>1994.12. 4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등 대구지역 15개 재야·시민·학생단체 회원 4백여 명이 "12·12 군사반란자 재판회부와 세계무역기구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p>	<p>빌미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p> <p>1994. 1.18. 풍산 안강공장, 노조지부장과 총무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가.</p> <p>1994. 2. 1. 풍산안강공장, 노조대의원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노조간부 4명이 철야농성에 들어가.</p> <p>1994. 2.26. '연대와 실천을 위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출범.</p> <p>1994. 3.31. 대노련, '노·경총 임금인상합의' 비난.</p> <p>1994. 4. 2. 대노련 등 6개 노동단체와 20여 개 단위 노조 200여 명 노총 대구지역 본부 앞에서 '밀실합의 규탄 집회' 갖고 임금합의안 철회 촉구.</p> <p>1994. 4.19. 안동 신안운수, 신안택시노조, 사남금 조정에서 노사 이견으로 삭발파업.</p> <p>1994. 6.13. 대구택시노련 파업돌입.</p> <p>1994. 6.14. 대구택시노련, 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노조위원장 등 5명 구속.</p> <p>1994. 6.15. 대구택시노련, 대부분의 택시노조는 파업을 중지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지켜보기로. 그러나 천일교통 등 4개 택시노조 파업 계속.</p> <p>1994. 6.21. 안동 경안택시, 노사임금협상 결렬로 직장 폐쇄.</p> <p>1994. 6.22. 경대병원노조, 조합원 87%의 찬성으로 24일부터 파업돌입.</p> <p>1994. 6.24. 경대병원노조,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에 따라 파업유보.</p> <p>1994. 6.27. 대동공업 노조 파업돌입.</p> <p>1994. 6.29. 대우기전, 경찰투입, 노조위원장 박용선씨 등 3명 구속. 노조원 중 4명은 굴뚝 농성.</p> <p>1994. 7. 6. 대우기전, 노조간부 굴뚝 농성 일주일째, 노조원의 정상교섭 요구에 회사 측은 손해배상 청구.</p>	<p>1994. 1.21. 낙동강 살리기 전국민대회(대구백화점, 5명 참가)</p> <p>1994. 1.22. 영주 영풍농민회 4차 농기계반납투쟁(시청, 3대)</p> <p>1994. 1.30. 안동지역 거리 선전전 및 서명운동 전개</p> <p>1994. 2. 1. 국회비준거부 UR재협상을 위한 전국 농민대회(대학로, 각 군 500여명); 대구경북 비상대책위원회 거리선전 및 서명운동(동대구역 일대); 안동지역 거리선전 및 서명운동</p> <p>1994. 2.12. 국회비준거부 UR재협상을 위한 거리 문화제(대구백화점 일대)</p> <p>1994. 4. 2. 의성군 영농발대식</p> <p>1994. 4. 4. 영덕군 농민회 민자당 지구당사 항의 방문</p> <p>1994. 4. 5. UR비준저지를 위한 김천, 금릉 농민회 거리선전 및 서명운동</p> <p>1994. 4. 6. UR국회비준저지 및 재협상 성명 채택 촉구를 위한 도의회 방문(30여명)</p> <p>1994. 4. 7. 안동농민회 민자당 지구당 항의 방문</p> <p>1994. 4. 8. 영주 영풍농민회 민자당 지구당 항의 방문</p> <p>1994. 4. 9. UR 밀실협상 규탄 및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 대회(100여명)</p> <p>1994. 6. 4.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대구 북구지역 대책위 출범식</p> <p>1994. 6.10.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경산지역 국회의원 이영창 소환운동본부 출범식(시장, 200여명); 금릉지역 비상대책위원회 결성</p> <p>1994. 6.11. UR국회비준저지 및 재협상 쟁취를 위한 경북농민 비상결의대회(경북대, 200여명)</p> <p>1994. 6.20~24. 임시국회를 대비한 농성투쟁(서울 민주당사)</p> <p>1994. 6.24. 울진군 하계농활 발대식</p>	
--	---	--	--

		<p>1994.12.22. 한국통신노동조합 대구지방본부, 노조원 50여명이 한국통신주식매각대금을 정보통신발전기금으로 기부하려는 정부의 조치를 지난 19일 회사 이사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에 항의, 한국통신 대구사업본부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에 돌입.</p>	<p>1994. 6.29. 하계농활 발대식(농활수행 전지역)</p> <p>1994. 7. 6. 영천농민회 하계농활 해단식 및 농민대회</p> <p>1994. 7. 7. 각 군 농활 해단식 및 농민대회(농활수행 전지역)</p> <p>1994. 8. 2~5. 범민족대회를 위한 지역 순례단 방문(영주, 안동, 상주, 구미 등)</p> <p>1994. 8.13~15. 범민족대회(서울 30여명 참가)</p> <p>1994. 8.30. 영주 영풍농민회 소폐사에 따른 (주)한농 항의 방문</p> <p>1994. 9. 2. 안동농민회 한해 공정조사 촉구를 위한 군청 항의 방문</p> <p>1994.10.12. 전국 앞담배 경작자 대회(신탄진 70여명)</p> <p>1994.10.25. 경북 동시다발 차량시위</p> <p>1994.11.12. UR국회비준저지, 추가협상쟁취 및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경북농민대회(안동, 500여명)</p> <p>1994.11.29. 쌀값보장 WTO 국회비준 반대 이해법인 쟁취를 위한 94 전국농민대회(보라매공원, 400여명)</p> <p>1994.12. 1. 영천 입고민 폐수방출에 따른 시위</p> <p>1994.12. 4. 서울 민주당사 농성투쟁 전개</p> <p>1994.12. 7. 선산군 농민회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군수실 항의 농성</p> <p>1994.12. 8. 장군 동시다발 차량시위 및 민자당 지구당사 항의 농성(11개 군에서 시행); 의성군 다인면 농민회 비적제투쟁(면사무소, 250여 가마)</p> <p>1994.12. 8~10. 경산농민회 군청 앞 삭발농성 전개</p> <p>1994.12. 8~12. 김천, 금릉 농민회 UR국회비준반대를 위한 군청 항의 방문 투쟁</p> <p>1994.12.14.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비상 상경투쟁(경북 5명); 영덕군 농민대회 및 차량시위</p>	
<p>1995</p>	<p>1995. 5.11 경북대생 5백여 명이 "추모비 철거"로</p>	<p>1995. 1. 9. 대구지역 노동조합연합 의장 정우달</p>	<p>1995. 1.12~14. 봉화군 농민회 불량비닐 폐해보</p>	<p>1995. 3. 여성과학실연구회 창립</p>

<p>인한 시위.</p> <p>1995. 7.21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미군기지대책위원회관계자 10여명은 21일 오전 캠프위키 후문앞에서 "미군측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시위를 벌임.</p> <p>1995. 7.22 대구·경북지역 대학총생회연합은 "7·18검찰 발표규탄과 학살자 기소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짐.</p> <p>1995. 7.25 대경총련소속 대학생 2백 50여명은 "7·18 검찰발표무효와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2차결의대회"를 가짐.</p> <p>1995. 8.6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대구경북본부는 6일 오후 2시 경북대에서 학생 시민등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군부대 이전 시위 학생·시민 가두행진"을 벌임.</p> <p>1995. 8.7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양심수 5명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교도소서 단식농성을 벌임.</p> <p>1995. 9.29 경북대등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들은 "5월학살자 처벌을 위한 대경총련 결의대회"를 가지며, 올 들어 처음으로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과격시위를 벌임.</p> <p>1995. 11.6 대경연합·민노총추진위등 대구지역 32개사회단체는 "노전대통령 구속수사촉구 김영삼대통령대선자금공개,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대구시민대회"를 개최.</p>	<p>씨를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p> <p>1995. 5.12.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양봉수씨. 노조행사 참석하러다 경비원들로부터 지시 받아 분신.</p> <p>1995. 6.21. 국립대 노조 재파업. 경북대 등 전국 7개 국립대 직원 노조가 20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재파업에 들어감.</p> <p>1995. 6.21. 경북대 직원 노조는 '기성회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의 교섭 의지가 없어 재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힘.</p> <p>1995. 6.29. 강원 산업 직장 폐쇄 결정</p> <p>1995. 7.25. 한국 통신노동 파업 결의</p> <p>1995. 7.26. 영남대 병원 파업에 돌입.</p> <p>1995. 7.31. 한통노조 단체인등 중단선언</p> <p>1995. 8.18. 영대병원, 경찰 1천2백 명 투입하여 노조위원장 등 농성 노조원 전원 연행. 현재 병노련 산하 전국 135개 노조별로 농성 돌입 중.</p> <p>1995. 8.24. 대구노련 박용선 의장 3자개입협약 구축</p> <p>1995. 9.15. 대백노조 기습 출범.</p> <p>1995. 9.28. 영남대 병원노조, 영남대 병원은 노조원 복귀후 노조간부 8명 해고</p> <p>1995.10. 4. 구미 제일합섬, 노동자들이구미 시청과 회사측의 결탁을 항의하여 농성에 돌입.</p> <p>1995.10.16. 제일합섬 노조, 노조실질신고 반려사건은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일단락지어짐.</p> <p>1995.12. 3. 지난 1990년 결성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6년여의 활동을 마감하고 해산됨.</p> <p>1995.12. 6. 대구백화점 노조, 불법파업 시비로 장기파업사태에 접어들게 됨.</p>	<p>상을 위한 상경투쟁</p> <p>1995. 1.20. 상주 농협민주화 투쟁</p> <p>1995. 3.18. 고령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집회 (국악당 300여명)</p> <p>1995. 4.15. 김천시 농민회 영농발대식(김천역 광장 100여명)</p> <p>1995. 4.17. 구미시 농민회 영농발대식(선산장터 100여명)</p> <p>1995. 4.22. 새통채 발기인대회(경북대)</p> <p>1995. 4.23. WTO 이해특별법 조기실시와 통합의 보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경희대, 150여명)</p> <p>1995. 5. 4. 한총련 출범식(경북대)</p> <p>1995. 6.10. 고령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집회 (국악당 400여명)</p> <p>1995. 6.27. 지방자치제 선거일</p> <p>1995. 7. 4. 하계 농활발대식(농활수행전지역)</p> <p>1995. 7.12. 하계 농활해단식(농활수행 전지역)</p> <p>1995. 7.31. 전농 통일 일꾼 수련회(서울 송실대)</p> <p>1995. 8. 2. 지통대 안동집회</p> <p>1995. 8. 3. 지통대 상주, 구미집회</p> <p>1995. 8. 5. 지역 통일 축전(대구백화점)</p> <p>1995. 8.14~15. 8·15 민족공동행사(서울 보라매 공원 20여명)</p> <p>1995. 9. 2. 전국 노동자대회(대구 영남전문대)</p> <p>1995. 9. 6. 전국 일담배생산자 대책위 총회(충북대)</p> <p>1995. 9.18. 기획회의 및 만양고추 대책위(서울)</p> <p>1995. 9.28. 만양고추 피해보상을 위한 상경투쟁 (서울 흥농본사 앞, 400여명), 대구 의보연대회의(도연맹사무실)</p> <p>1995.10. 5. 기획회의 및 만양고추 대책위(서울)</p> <p>1995.10. 7. 대구 의보연대회의(도연맹사무실)</p> <p>1995.10. 8. 고령 가야산 골프장 반대집회(백운동)</p> <p>1995.10.10. 일담배 생산자 대회(청송군 진보면, 500여명)</p>	<p>1995. 5. 풍물굿패 난장 창단</p> <p>1995. 5.30. 여성과 현실연구회 발족(초대회장 김영순)</p> <p>1995. 5.12. 포항여성회 창립</p>
--	---	---	--

<p>1996</p>	<p>1996. 5. 6. 대구공업전문대생 박동학씨 의문사 사건.</p> <p>1996. 12. 8. 버스요금 투명성보장 및 대구광역시 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민대회.</p>	<p>1996. 1.24.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대노련), 경북대에서 대의원 및 가입노조간부 등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갖고, 민주노총 대구본부 출범에 박차를 가할 예정.</p> <p>1996. 3.14. MBC 노조, 강성구 사장의 연인철회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 대구·포항·안동 문화방송 노조도 파업에 돌입</p> <p>1996. 3.21. 영남대의료원 노조단압 저지를 위한 대구지역대책위, 해고 노조원의 원직 복직, 조</p>	<p>500여명)</p> <p>1995.10.12. 만양고추 피해보상을 위한상경투쟁 (서울 여의도, 300여명)</p> <p>1995.10.14. 5·18관련 제2차국민대회(대구백화점)</p> <p>1995.10.24. 전농 기획회의(서울)</p> <p>1995.10.26. 도연맹 일정관련 기자회견(도연맹사무실)</p> <p>1995.11. 4. 노태우 비자금 관련 시·도민 대회(대구백화점)</p> <p>1995.11.27. 통합의보 쟁취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경북농민대회(상주, 1,000여명)</p> <p>1995.11.30. 사과가격보장을 위한 경북지역 사과생산자 대책위 결성(도연맹사무실)</p> <p>1995.12. 4. 통합의보 쟁취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영덕농민대회(영덕시장, 150여명)</p> <p>1995.12.11. 통합의보 쟁취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안동농민대회(길안, 600여명)</p> <p>1995.12.14. 통합의보 쟁취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의성농민대회(의성장터, 200여명); 통합의보 쟁취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영천농민대회(시민회관 앞, 300여명)</p> <p>1995.12.16. 사과가격보장을 위한 비상 도 운영위원회(안동)</p> <p>1995.12.21. 사과가격보장을 위한 경북지역 사과생산자 비상대표자대회(경북대, 400여명)</p>	<p>1996.10.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결성</p> <p>1996.10. 평등의 전화 개설</p>
-------------	--	--	---	--

	<p>합비 가입료 해제 등을 주장하며 의료원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p> <p>1996. 3.22. 민주노총 대구본부, 계명대에서 창립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을 가짐. 민주노총 대구 본부에는 51개 노조의 단위노조가 가입.</p> <p>1996. 4. 3. 한동대, 은누리교회의 학교인수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는 노조에 대해 직장 폐쇄로 맞서.</p> <p>1996. 4. 6. 문화방송노조, 강성구사장의 연임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3월14일부터 24일간 계속 해온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p> <p>1996. 4. 8. 구미 한국합섬노조, 회사 측의 노조간부 징계와 24억 손해배상 청구에 반발하여 파업.</p> <p>1996. 4. 8. 포항지역 11개 택시회사노조, 택시의 6부제 운행과 사납금 동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p> <p>1996. 4.17. 포항지역 11개 택시회사노조, 택시의 8부제 운행과 사납금 1천원 인상 중재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종결.</p> <p>1996. 4.22. 전교조, 전교조의 '합법성'을 정부에 요구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p> <p>1996. 4.26. 노총, 복수노조 허용 결의. 1996. 5. 5. 분신 노조간부의 경찰 후송을 저지하거나 연행 노조원 석방 요구하며 항의하여 연행된 한국합섬 노조원 158명 중 45명은 구속. (나중에 29명 영장기각)</p> <p>1996. 5. 6.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자동차부품, 호텔 업계 노조 등 19개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p> <p>1996. 5.13. 한국합섬 노조, 사측과 분신노동자에 대한 보상 등에 합의하고 36일간의 파업 종결.</p> <p>1996. 5.18. 포항지역 노조협의회, 민주노총 포항 지역건설추진위, 민주금속연맹 포항지부 등 3개 노동단체, 형산강에서 집회를 통해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조세제도 개선 등 사회개혁운동에 대한 동감, 개별노조 파업에 대한 노조간</p>	<p>류공원, 40여명 참가)</p> <p>1996. 8.22. 식용쌀수입저지 경남경북농민대회 (부산역,150여명 참가(경북 60여명))</p> <p>1996. 8.31. 쌀자급 및 통합의보 쟁취를 위한 도보 행진(8월 3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9월 10일 여의도까지 진행): 경북 전기간 16개 시·군 농민회에서 100여명 참가</p> <p>1996. 9.10. 통합의료보험과 쌀자급을 위한 96 전국농민대회(여의도광장, 경북 300여명 참가)</p> <p>1996. 9.20. '홍농종묘 파산투쟁 전국농민 대표자 회의'(홍농본사 앞, 100여명 참가(경북 10명 참가)); 청송, 봉화를 중심으로 지역투쟁 진행</p> <p>1996.11.11. 농업인의 날 성명서</p> <p>1996.11.12. 봉화군 농민대회(농협 옆 주차장, 200여명 참가): 고추 정부수매요구(근당 3,700원) 하며 시내행진. 군청 항의 방문</p> <p>1996.11.20. 김천시 농민대회(강변주차장, 20여명 참가): 차량시위 후 시청과 시의회 방문(쌀수매가 인상에 대한 긍정 답변)</p> <p>1996.11.22. 안동시 농민대회(인시장, 250여명 참가): 행진 후 시청에서 고추, 배추, 왕겨 등 불태움. 의보조합, 신한국당 항의 방문</p> <p>1996.11.24. 영양군 농민대회(북개천, 300여명 참가): 대회 후 의보조합 항의방문.</p> <p>1996.11.27. 정부수매안 규탄 성명서</p> <p>1996.12. 4. 청송군 농민대회(강변주차장, 200여명 참가):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공동 개최; 영덕군 농민대회(5일장터, 50여명 참가): 고추전량수매 요구</p> <p>1996.12. 7. 쌀수매가 인상 및 통합의료보험 쟁취를 위한 96 경북농민대회(영천시장, 1,000여명 참가): 대회 후 시내행진(농협, 신한국당, 시청 항의 방문), 의장님 구속영장 발부</p> <p>1996.12.10. 12·7 경북농민대회 탄압규탄 성명</p>	
--	--	---	--

	<p>연대 등을 천명.</p> <p>1996. 6.17. 만도기계 노조, 경주·아산·평택 등 6개 공장에서 파업 돌입.</p> <p>1996. 6.21. 만도기계, 오리온 전기(42시간 근무제 합의), 경북대병원 등의 노사협상 타결.</p> <p>1996. 6.26.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동공업, 남선물산, 대우기전의 노조가 참가한 가운데 달성공단에서 '대구지역 96년 임단투 승리결의대회'를 갖고 대동공업의 직장폐쇄 철회 요구.</p> <p>1996. 6.27. 달성공단의 농기계 부품 생산업체인 대동금속 노조는 부분파업 돌입.</p> <p>1996. 7. 1. 영대병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텐트농성에 돌입.</p> <p>1996. 7. 3. 데레사 소비센터 노조, 노조설립신고. 그런데 노조는 회사가 노조사무장을 감금, 폭행하는 등 노조와해 공작을 했다고 비난.</p> <p>1996. 7.12. 대동공업 노조, 달성공단 운동장에서 '대동공업 직장폐쇄 철회 및 '96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벌임.</p> <p>1996. 7.15. 동산의료원, 제정계자 7명 전원 복직.</p> <p>1996. 7.15. 대동공업 노조, 텐트농성에 돌입.</p> <p>1996. 7.18. 경북 대우자동차 노조, 대우자동차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p> <p>1996. 7.19. 남선물산, 폐업공고를 내고 20일부터 휴업. 19명이 남아 고용승계투쟁을 벌임.</p> <p>1996. 7.19. 대구지역의보 노조, 해고자 17명에 대한 복직을 사측과 합의.</p> <p>1996. 8.17. 두산기계, 14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부분파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에 들어감.</p> <p>1996. 9. 2. 두산기계노조, '직장폐쇄 철회, 노조탈퇴 압력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p> <p>1996. 9. 2. 전교조,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본부' 발대식을 갖고, 전국의 지부와 동시에 농성에 돌입. 이 농성을 11일까지 계속할 예정.</p>	<p>서</p> <p>1996.12.13. 쌀수매가 인상과 통합의료보험을 위한 96 2차 전국농민대회(여의도 광장, 경북 230여명 참가)</p>	
--	---	---	--

		<p>1996. 9. 3. 병노련 대구-경북지역 본부, 가톨릭병원 노조의 집행간부들은 철야농성.</p> <p>1996. 9.13. 민주노총,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노동법개정 투쟁본부 발대식을 가짐.</p> <p>1996.10.01. 민주노총, 노사개혁위원회에 불참을 선언.</p> <p>1996.10. 9. 민주노총 해고복직투쟁위, 경주-포항 지역 해고노동자 협의회, 택시노조 등,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남선물산 해고자 문제, 택시 1인 1차제 근절 등 주장.</p> <p>1996.10.28. 경주 용강공단의 동이산업 노동자들, "경주시가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며 농성에 돌입.</p>		
1997	<p>1997. 3.22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연합 "한보비리 규명요구"를 위한 시위를 가짐.</p> <p>1997. 1.10 청년회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대구지역 청년선언'</p>	<p>1997. 1. 2.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새로운 노동법 개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3일부터 2단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p> <p>1997. 1. 3. 대우기전 노조, 만도기계 노조, 기아자동차 노조 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9개 노조파업 돌입.</p> <p>1997. 1. 6. 민주노총 대구지역 투쟁본부, 2천여명 참가한 가운데 4차 결의대회 개최.</p> <p>1997. 1. 7. 김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노동법의 정당성 옹호, 경대병원 노조, 대구염색공단 노조, 지역의보 노조, 재파업 돌입.</p> <p>1997. 1. 8. 민주노총 대구본부 19개 노동조합(8천명 파업 중)</p> <p>1997. 1.11. 민주노총 대구지역투쟁본부 대구지역범시민대책회의, 오후 5천여 명의 노동자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철회를 위한 제 1차 국민대회' 개최</p> <p>1997. 1.1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달성지부, 공동으로 오후 2시 대백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남양국까지 가두행진.</p> <p>1997. 1.18. 민주노총 대구지역투쟁본부 대구지역범시민 대책회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p>		<p>1997. (가칭)노동위원회 구성/해체</p> <p>1997. 2. 민예총 대구지회, 노동법, 안기부법 통과 반대 문화공연(대구백화점 앞)</p> <p>1997. 5. 소리타래, 북녘동포돕기 독자모금공연 (동포에게 사랑을 민족에게 통일을)</p> <p>1997. 9. 청소년문화센터 우리세상 창립</p> <p>1997.12. 그룹 봉우리, 결성</p>

		<p>개악 철회를 위한 제 2차 국민대회를 개최, 오후 5시경 계산성당 앞에서 김명환 본부장 등 간부들 사발식 후 계산 성당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p> <p>1997. 1.22. 민주노총 예고했던 대로 매주 수요일 파업전개. 민주노총 소속 대구-경북지역 20여개 노조(1만여 명), 수요일 파업에 참여. 민주노총 대구지역투쟁본부, 2천여 명의 노동자,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법 철회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p> <p>1997. 1.25. 민주노총 대구지역투쟁본부, 시민대책회의, 대백에서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완전철회를 위한 제 3차 국민대회' 개최.</p> <p>1997. 1.29. 민주노총 대구지역투쟁본부, 경북대병원 로비에서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p> <p>1997. 5. 1. 전국민주버스노조연맹, 출범식을 가짐.</p> <p>1997. 5.20. 민주택시노련, 전국 3백50여개 택시노조 노조원 2천여 명이 광주에서 출범식 가짐.</p> <p>1997. 6.12. 한국조폐공사노조 경산지부, 오후 1시부터 시한부 파업에 돌입.</p> <p>1997. 6.26. 만도기계 노조, 시속과 주 40시간 근무제와 퇴직금누진제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경주, 아산, 안양 등 6개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p> <p>1997. 6.27. 대현교통 운전기사 120명, 임금체불에 항의하여 파업.</p> <p>1997. 6.28. 민주노총, 노조원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97년 임단협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7월 9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함.</p> <p>1997. 7. 1. 쌍마섬유노조, 파업에 돌입.</p> <p>1997. 7.14. 포항의 흥화공업 노조, 부분파업에 돌입.</p> <p>1997. 7.16. 구미의 한국전기조자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로 파업 돌입.</p>		
--	--	--	--	--

		<p>1997. 7.23. 구미의 한국전기초자,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신고서를 제출.</p> <p>1997. 7.24. 포항의 흥화공업, 계속되는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직장폐쇄 신고서를 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 제출. 이에 맞서 노조는 사무실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p> <p>1997. 8.19. 구미의 한국전기초자, 7월 16일부터 시작한 직장폐쇄조치를 풀고 노조 측과 20차 교섭에 들어감.</p> <p>1997. 9. 1.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업식 공단 노조 등 대구와 구미의 7개 노조를 포함한 전국 22개 노조 1만 5천여 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될 전국민주화학생연맹을 9월 3일 대동은행 강당에서 결성한다고 밝힘.</p> <p>1997. 9.30. 한국전기초자 노조, 5백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총회에서 77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10월 4일부터 정상조업에 복귀하기로 함.</p> <p>1997.10. 1. 쌍마섬유, 임금 체불에 항의해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맞서 동대구세무서에 폐업 신고.</p> <p>1997.11. 6. 전교조 대구지부, 지방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p>		
1998	<p>1998. 4. 2. 대경연합·민주노총추진위 등 대구지역 32개 사회단체는 "공정한 IMF 재협상과 정리해고제 저지 및 김영삼 사법처리를 위한 총력기대회"를 개최.</p> <p>1998. 12. 18. 대구지역 25개 시민 사회단체는 가칭 '경찰폭력 규탄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공동위)를 결성하고 '제1차 경찰폭력 규탄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보장 촉구대회'를 가짐.</p>	<p>1998. 1. 6.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쌍마섬유 노조,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한데 대해 항의하며 대구지방노동위원회 건물 앞에서 항의시위.</p> <p>1998. 4. 2. 대한중석 노조, 외국에 매각할 경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p> <p>1998. 4. 14. 구미 오리온전기의 사무직 노동자 7명, 회사가 자신들을 대기발령하자 구미지방 노동사무소에 사무·기술직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 오리온 전기의 사무직 노조는 구미공단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되는 것임.</p> <p>1998. 4.18.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고용안정 및 민</p>	<p>1998. 3.27. 의성농민회 '풍년기원제 및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영농발대식'(10시, 마늘시장, 회원 100여명, 농민 700여명 참석, 대회 후 시내행진)</p> <p>1998. 4. 4. 영양군농민회 1차 선전전(10시, 영양읍, 선전물 배포 및 서명활동, 서명용지 농협 창구 비치)</p> <p>1998. 4. 7. 영천시농민회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영농발대식'(10시, 문화회관 앞, 회원 100여명 참석, 대회 후 시내행진, 선전전, 한나라 지구당 사 앞 약식집회); 안동시농민회 교육 및 영농발대식(10시, 농협시지부, 100여명 참석, 1부 강연: 조국현(전농정책위원장), 2부: 풍년기원 고</p>	<p>1998. 2. 영상집단 아메닉 발족식(곡주사)</p> <p>1998. 5. 대구여성영화제 "여성이 여성을 선택하다"</p> <p>1998. 5. 영상집단 아메닉, 노동자 문예학교 비디오팀 제작강좌</p> <p>1998. 7.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대구시민 한마당</p> <p>1998.10. 제1회 대구노동자 문화제</p> <p>1998.12.11. 민예총 대구지회, 제1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개최/ 소리타래, 수퍼옥수수 북녘보내기 거리모금공연</p>

		<p>중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대구 대회개최</p> <p>1998. 4.23. 민주택시노조연맹, 완전 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p> <p>1998. 5. 1. 민주노총, 10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경찰의 저지로 노동자, 학생과 경찰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남.</p> <p>1998. 5. 9. 대한중석 노조, 이스카사의 인수 후 1년간 정리해고를 유보하고, 정리해고를 할 경우 매출액에 따라 결정한다는 등에 합의함.</p> <p>1998. 5.23.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동대구역 광장에서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벌임.</p> <p>1998. 5.27. 민주노총,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제 철폐,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며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틀간의 시한부 파업에 돌입함.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대구백화점에서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벌임.</p> <p>1998. 6.17.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국민승리 21 대구본부-대구지역 건설노조 등 17개 단체, 실업자동맹을 만들고, '실업대책본부'를 결성함.</p> <p>1998. 6.19. 대동은행 노조, 고용승계보장을 요구하며 노조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돌입.</p> <p>1998. 6. 23. 대경연합·민주노총 대구본부·전농 경북도연맹 등 대구·경북의 30개 단체, '고용안정 및 IMF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대책위원회'를 발족함.</p> <p>1998. 6.29. 대동은행 노조, 상당수 노조원들이 서울 명동성당에 집결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p> <p>1998. 7. 1. 태경물산 노조, 파업에 들어감.</p> <p>1998. 7. 2. 한국통신 대구지역본부 노조, 정부의 '일방적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각 전파국 지부별로 노조집행부의 철야농성 돌입.</p> <p>1998. 7. 4. 경북지역 합법교원노조 준비위원회, 안동에서 시·군 준비위원회 교사대표들이 참</p>	<p>사, 3부: 각당 항의방문)</p> <p>1998. 4.11. 울진군농민회 선전전(선전물 배포 및 서명전); 경산시농민회 '농가부채 해결과 농정파탄 책임자 처벌을 위한 1차정산농민대회'(11시, 경산시, 회원·농민 100여명 참석, 시내행진 및 한나라당사 앞 항의 규탄)</p> <p>1998. 4.29. 고령군농민회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고령군 농민대회'(9시, 국악당 앞, 농민회원, 농업경영인 등 100여명 참석, 주재강연(김실경 의장), 자유발언, 평화행진)</p> <p>1998. 5.12. 구미시농민회 '대통령 농정공약 촉구 및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구미시농민대회'(9시, 북개천, 한농연 구미시연합회 공동주최, 200여명 참석; 김놀이, 풍물패 공연, 본 대회(부채 주재강연), 가두행진)</p> <p>1998. 7. 2. 의성군농민회 '농가부채해결과 한총련탄압 중지를 위한 의성군농민대회'(8시, 북개천, 300여명 참석, 격려사: 군수·농협지부장, 정치연설: 김실경 의장, 이후 행진(마늘시장에서 의성역), 정창화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농가부채 서명받음)</p> <p>1998. 7. 3. 봉화군농민회 '농민·학생 한마당'(10시)</p> <p>1998. 7. 5. 성주군농민회 '식량자급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농민·학생 한마당'</p> <p>1998. 7. 6. 경산시농민회 '식량자급·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경산농민대회'(11시, 경산시, 150여명 참석)</p> <p>1998. 7. 7. 상주시농민회 '식량자급·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상주 농민학생 결의대회'(11시, 동상로터리, 1,100여명 참석, 한농연 상주시연합회 공동주최, 국회의원·시장·농협본부장 서명받음); 영천농민회 '식량자급·농산물가격보장·농가부채해결을 위한영천농민대회'(10시 수덕예식장 앞, 300여명 참석, 집회·가두행진,</p>	
--	--	--	---	--

	<p>석한 가운데 출범함.</p> <p>1998. 7. 7.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산하 4개 노조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연대파업에 들어감.</p> <p>1998. 7.22. 대구업색단지관리공단 노조, 회사측의 상여금 150% 삭감과 인원감축안에 반발하여 파업에 들어감.</p> <p>1998. 7.22. 대구지역실업대책본부, 대구시에 비상실업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2차 실업자 대회를 가짐.</p> <p>1998. 7.23.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힘.</p>	<p>국회의원 서명받음; 김천시농민회 '98 김천 농민·학생 한마당(14시, 김천교 옆 잔디광장, 500여명 참석, 풍물패 길놀이, 소리타래 축하공연, 장기자랑대회, 대동놀이); 구미시농민회 '식량자급·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구미농민·학생 한마당'(11시, 북개천, 120여명 참석, 가두행진)</p> <p>1998. 7. 8. 청송군농민회 '농가부채해결·한총련 탄압중지·고용안정을 위한 농민·학생 결의대회'(10시 진보)</p> <p>1998. 9.10. 안동 길안면 지회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길안면 농민대회(길안면사무소 앞)</p> <p>1998. 9.15. 식량자급·농가부채해결·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98 전국농민대회(보라매공원 잔디광장, 전국 3만 여명) 참가: 경북 1,400여명 [상주(150), 구미(40), 고령(72), 성주(70), 영덕(12), 안동(147), 봉화(70), 영주(40), 의성(279), 김천(31), 경산(80), 청도(21), 청송(120), 영천(160), 영양(87), 예천(20)]</p> <p>1998.11.10. 1차 전국민중대회(여의도 한강둔치, 전국 3만 여명, 경북 20여명 참가)</p> <p>1998.11.19. 고령군농민회 '식량자급·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고령군농민대회'(10시, 고령읍, 한농연 고령군연합회 공동주최, 150여명 참가)</p> <p>1998.12. 2. 농가부채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수해피해 보상! 98 경북농민대회(상주 풍물시장, 11시, 5,000여명 참가, 상주 3,500여명, 시·군 1,100여명, 단체·학생 200여명) 참가: 상주(3,500), 의성(200), 구미(85), 청송(90), 영덕(45), 울진(7), 김천(70), 안동(80), 고령(30), 봉화(90), 경산(120), 성주(30), 영주(26), 예천(69), 청도(25), 영천(138)</p> <p>1998.12.12. 2차 민중대회(대구백화점 앞, 700여명, 농민 10여명 참가)</p> <p>1998.12.16.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전국농민대표</p>	
--	--	--	--

<p>1999</p>	<p>1999. 5.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를 위한 성명서 발표.</p> <p>1999. 12.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철야농성.</p>	<p>1999. 4. 6. 대구CBS노조 파업</p> <p>1999.12.23. 주5일 근무제 등 5대사항 요구 대구 노동자 1천여 명 도심시위</p>	<p>자 대회</p> <p>1999. 1.30. IMF실태통치 반대, 민중생존권 시수를 위한 99년 민중연대투쟁 결의대회</p> <p>1999. 2.10. 안동시농민회 농협 안동시지부 앞 거리 선전, 방송 선전으로 시민홍보</p> <p>1999. 3. 3. 농협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비상농민대표자 대회(농협중앙회, 3명 참가)</p> <p>1999. 3. 6. 의성군농민회(7명), 농협시지부장, 대의원·단위조합장(13명) 금리인하 항의 면담</p> <p>1999. 3. 9. 상주시농민회(15명), 농협시지부장, 단위조합장(13여명) 금리인하 항의면담 진행</p> <p>1999. 3.11. 봉화군농민회(회장단), 농협군지부장, 단위조합장(일부) 금리인하 항의 면담</p> <p>1999. 3.15. 농협·농민단체 금리인하 항의간담회(10시, 영천시농민회)</p> <p>1999. 3.16. 상주시 농민회 협동조합 개혁 회원 교육(강사: 협동조합연구소 장종익, 80여명 참석)</p> <p>1999. 3.18.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전국 농민조합원대회(농협중앙회, 90여명 참가); 안동시농민회 성명서 발표('농협현실을 외면하고 농민조합원 의사를 무시하고 협동조합 정신을 망각한 '관치농협강화방안'의 정부주도의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라!')</p> <p>1999. 3.20. 국민회의 권정달(부총재) 사무실에 구속자 석방을 요구 항의농성(20명), 농협 안동시지부 전체 회원 방문(안동시농민회)</p> <p>1999. 3.22. 상주시농민회 회장단(8명) 농협시지부에 항의방문(3·18대회 탄압항의, 요구서 전달); 3·18 대회 탄압과 농협노조 성명서 관련 항의 집회(10시, 50명, 영천시농민회); 협동조합 개혁 선전전 전개(7시: 선산읍 우시장, 9시: 선산시장, 11시: 시정보고회가 열리고 있는 선산군민회관에서 선전전 진행, 14시경 농협시</p>	<p>1999. 2. 대경민족문화회, 민족문화작가회의 대구광역시지회로 명칭변경</p> <p>1999. 3. 풍물굿패 난장, 대구로 명칭 변경</p> <p>1999. 7. 전교조 노동부에 설립신고, 합법화</p>
-------------	---	--	--	---

		<p>지부를 향의방문, 구미시농민회)</p> <p>1999. 3.23. 농림부 협동조합 개혁 설명회장 피켓 시위(경북농업인회관, 20여명)</p> <p>1999. 3.25. 농민회와 농협(단위조합장) 간담회 진행(경산시농민회)</p> <p>1999. 3.29. 안동지역 농협개혁을 위한 토론회(14시, 농협시지부, 주최: 안동시농민회, 농협시지부)</p> <p>1999. 4. 2. 영농발대식(10시, 영천 수덕예식장 앞, 70여명), 농협 향의 방문 계관투척(영천시농민회)</p> <p>1999. 4. 3. 미국의 IMF 경제침탈, 전생책동 반대 및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동성로)</p> <p>1999. 4. 7. 농정공약 이행촉구 및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99 경북농민대회(11시, 대구백화점 앞, 전농 경북연맹, 한농연 경북연합회, 경북여성농민회, 경북여성농업인회, 전업농 경북연합회 공동주최, 5000여명 참가)</p> <p>1999. 4.14. 농림부 주최 '협동조합 개혁 설명회' 규탄 시위(영천시농민회)</p> <p>1999. 4.24. 전농 창립 9주년 기념 및 협동조합 개혁·농가부채 해결·농정공약 이행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대학로, 50여명 참가); 민중생존권·사회개혁 쟁취·IMF 반대를 위한 노동자·농민 결의대회 및 민중연대 한마당(명동성당)</p> <p>1999. 5.15. IMF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대개혁을 위한 99 민중대회(대구백화점 앞)</p> <p>1999. 6. 2. 예안면지회 농협 점거농성(안동시농민회)</p> <p>1999. 7. 2.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안동시농민회);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개혁과 미국·IMF반대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상주시농민회);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봉화군농민회);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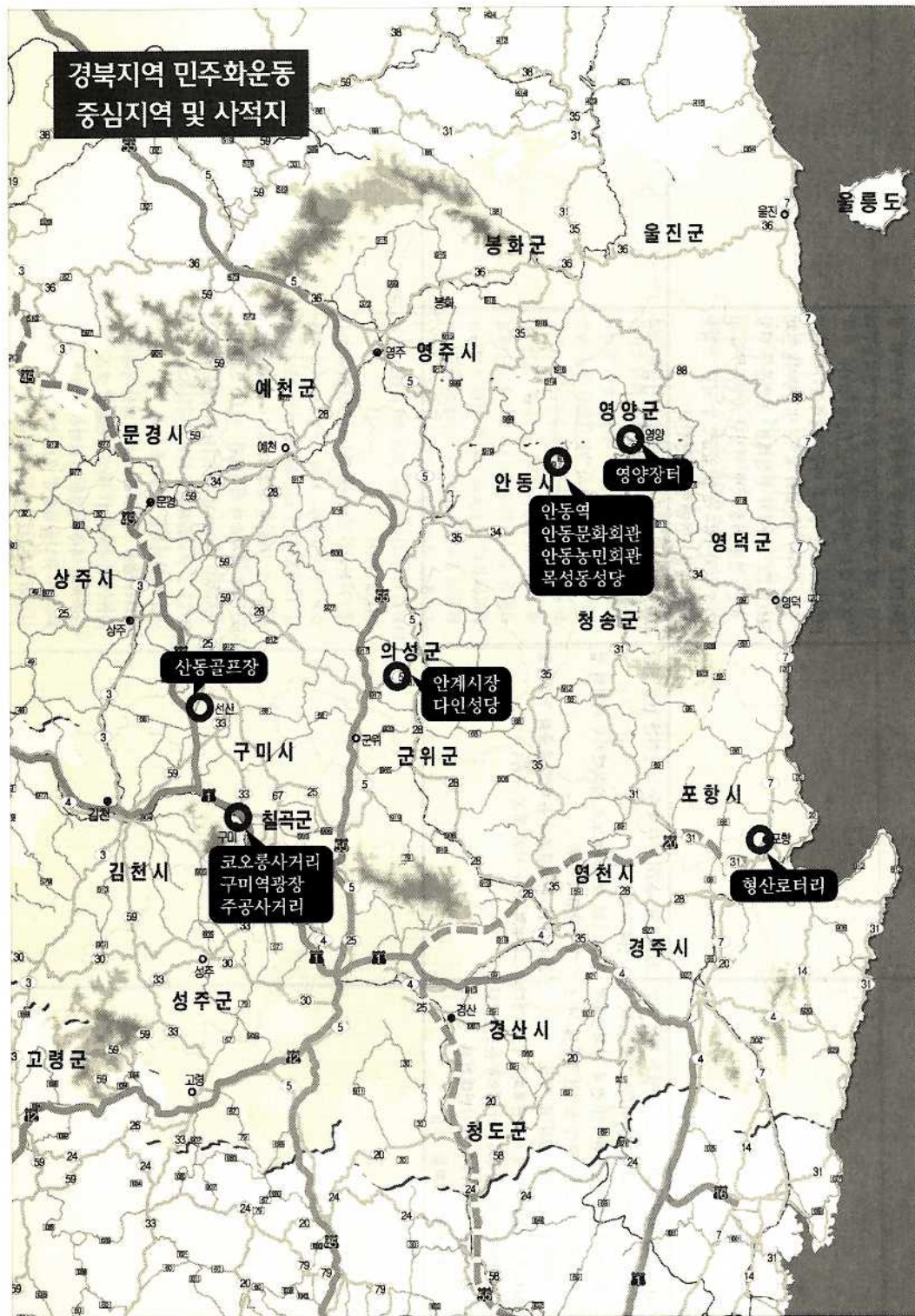
		<p>99 영천시 농민대회(영천시 농민회);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결의대회(구미시농민회); 협동조합 개혁 선전전(경산시농민회);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영양군농민회);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성주군농민회)</p> <p>1999. 7. 3.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김대중 정권·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청송군농민회);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고령군농민회);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한마당(김천시농민회)</p> <p>1999. 7. 4.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의성군농민회)</p> <p>1999. 7. 6.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IMF반대 시·군 농민학생 결의대회(영주시농민회)</p> <p>1999. 7. 8. 농협시지부, 단위조합 향의농성(상주시농민회); 농협시지부 향의농성(영천시농민회); 농협군지부 향의방문, 7·9 농협대회 상경 저지투쟁(청송군농민회); 김대중 정권 앞잡이 농협협동조합 규탄 고령군농민대회(농협군지부 향의농성, 고령군농민회); 농협시지부 향의방문(김천시농민회)</p> <p>1999. 7. 9. 김대중 정권 앞잡이 농협협동조합 규탄 경산시농민대회(농협시지부앞)</p> <p>1999. 7.15~17.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농정공약 이행촉구 전농 농성투쟁(국회 앞, 117명 참가)</p> <p>1999. 7.16.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의료보험 완전통합, 농정공약 이행촉구 전국농민</p>	
--	--	---	--

			결의대회(117명 참가) 1999. 7.17. 안동시농민회 국민회의 향의 농성(16일 전국농민결의대회 연행자석방 요구) 1999. 7.19. 동부농협 비리 투쟁(의성군농민회) 1999. 7.21. 상주시농민회 상주농업발전정책 규탄대회(10시, 문화회관 앞, 14개농민단체 공동 주체) 1999. 9. 9. 봉화군농민회 농가부채해결 집중선전진출양장터) 1999. 9.10. 농가부채 선전전(의성군농민회) 1999. 9.11. 상주시농민회 농가부채해결 선전전(트럭 20여대에 깃발, 현수막 부착하고 시내행진) 1999. 9.17. 영천시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영천장터); 농가부채 선전전(읍내장터, 성주군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읍내장터, 예천군농민회) 1999. 9.18. 영천시농민회 농가부채 선전전(신령면, 금호읍 장터); 농가부채 선전전(자인면 장터, 경산시농민회) 1999. 9.19. 농가부채 선전전(하양읍 장터, 경산시농민회) 1999. 9.29. 수해피해보상요구 대회(성주군농민회) 1999. 10. 4. 예안 '수해피해보상요구' 대회(안동시농민회) 1999. 10. 5. 영천시농민회 농가부채해결 선전전(영천시민체전) 1999.10. 6. 농협중앙회 임원 임금 및 실비인상 방침 규탄 투쟁(농협중앙회 지역본부, 20여명) 1999.10. 9. 민족자주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 결의대회(대구백화점 앞) 1999.10.12. 의보통합 연기방침 철회를 위한 노동자·농민·시민결의대회(국민회의시지부 앞) 1999.10.15. 농협임직원 실비인상 철회 농협시지부 항의방문(경산시농민회); 농가부채 해결 선전전(성주군민 체육대회, 성주군농민회) 1999.10.16.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구경북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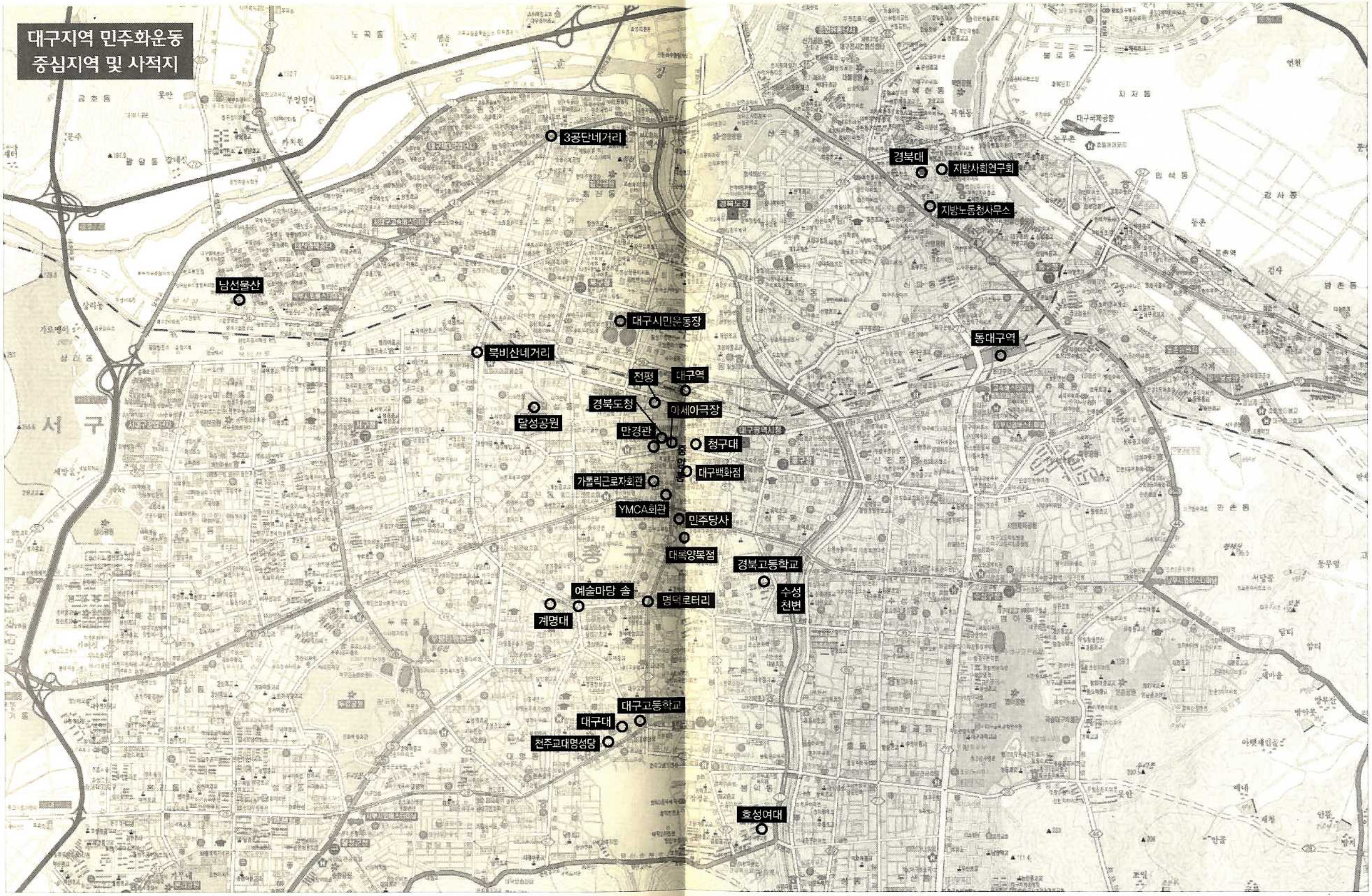
			시·도민 한마당 1999.10.30.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 결의대회 1999.11. 2. 뉴라운드 협상관련 외교통상부 대구경북 설명회장 항의투쟁(대구상공회의소 강당, 30여명); 농가부채해결과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촉구하는 성주군농민대회(옛 우시장, 100여명) 1999.11.14. 민중생존권 사수·경제주권 수호·국가보안법 철폐·농가부채 완전해결·노동시간 단축 99 1차 민중대회(국회, 20여명 참가) 1999.11.18.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 완전해결을 위한 신령·청통면 농민대회(신령장터, 200여명, 영천시농민회) 1999.11.22.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 완전해결을 위한 영천시 농민대회(영천시시장, 150여명, 영천시농민회) 1999.11.26. 농가부채 완전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상주북부지역농민대회(합창역 앞, 700여명); 농가부채 완전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상주서부지역농민대회(모서시장, 600여명); 상주시내까지 차량행진(150여대) 1999.11.29. 안동시농민회 농가부채 완전해결, 수해피해 보상을 위한 안동농민대회(예안면 월곡농협 앞, 500여명) 1999.11.30. 농가부채 해결과 WTO 추가개방 반대 경산농민대회(경산시시장, 500여명, 경산시농민회) 1999.12. 2. 의성농민 행동의 날, 트랙터 1대, 차량 50여대에 대형깃발, 포스터, 구호 부착하고 차량행진 진행(의성군농민회); 농가부채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선전전(봉화장터, 봉화군농민회); 농가부채해결 선전전(선산장터, 구미시농민회) 1999.12. 3.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 완전해결을 위한 금호·대창 농민대회(금호읍 장터,	
--	--	--	---	--

			<p>영천시농민회)</p> <p>1999.12. 4. 농가부채해결과 농축산물 가격보장 선전전(고령장터, 각 면에 현수막 부착, 고령군 농민회);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방문(김천시농민회);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방문(영덕군농민회)</p> <p>1999.12. 7. 농가부채해결 선전전(선산장터, 구미시농민회); 농가부채 차량선전전(예천군농민회)</p> <p>1999.12.10. 농가부채 완전해결·WTO 수입개방 반대·국가보안법 철폐 99 전국농민대회(서울역, 1726명 참가); 민중생존권 시수·경제주권 수호·국가보안법 철폐·농가부채 완전해결·노동시간 단축 99 2차 민중대회(서울역, 1726명 참가)</p> <p>1999.12.14.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 정장화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의성군농민회);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상주시농민회);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김윤환 의원 사무실 항의방문(구미시농민회);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김종학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경산시농민회);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청송군농민회)</p> <p>1999.12.15.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요구하며 국민회의, 한나라당사 점거농성(영천시농민회);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입법안 쟁취, 구속농민 석방을 위한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영주시농민회)</p> <p>1999.12.16. 농가부채해결, 농민 4대 법안 쟁취,</p>
--	--	--	--

			<p>구속농민 석방을 요구 권정달, 권오을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안동시농민회)</p> <p>1999.12.17. 농가부채 완전해결·농민탄압 규탄·4대 농민개혁입법안 쟁취 2차 전국농민대표자 대회(정부종합청사, 173명 참가)</p> <p>1999.12.22. 전농 정광훈 의장 석방과 농가부채해결을 요구하며 국민회의 점거농성(상주시농민회)</p> <p>1999.12.23. 농가부채 완전해결·농민운동 탄압 규탄·전농 의장 석방 권정달 의원사무실 점거농성(60여명); 농협 임금인상 규탄 조합장 항의 방문·면담(영천시농민회)</p>
2000	<p>2000. 7.23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는 23일 오후2시 대구국채보상운동공원에서 전국 사회단체회원과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양민학살 진상규명 집회"를 가짐.</p> <p>2000. 8. 7 지역 20여개 사회단체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자본의 해외부품조달규탄 및 노동기본권 시수 범시민대회'와 동시에 "SOFA개정" 집회를 가짐.</p>	<p>2000. 5.31. 주5일 근무제 등 노동현안 관철 전국 연대파업</p> <p>2000. 8.18. 보건의료노조 경북대지부 이정현 업무방해혐의 구속</p> <p>2000.11.15. 한국델파이 유계민, 윤종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시위 혐의 구속</p>	<p>2000. 1. 쓰레기 불법매립 반대투쟁(선남면, 성주군농민회)</p>



대구지역 민주화운동
중심지역 및 사적지



3공단네거리

경북대

지방사회연구소

지방노동청사무소

남성울산

대구시민운동장

북비산네거리

전평

대구역

경북도청

이세아극장

달성공원

만경관

정구대

대구백화점

가톨릭근로자회관

YMCA회관

민주당사

대륙양복점

경북고등학교

예술마당

수성천변

명덕로터리

계명대

대구고등학교

대구대

천주교대명성당

흥성여대